연구보고서
2006-05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후관리방안 연구

박철희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연구보고서 2006-05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후관리방안 연구
2006·10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89552-75-8 93030

연구보고서 2006-05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후관리 방안 연구

박철희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1993년 국제공인 엑스포인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최근 다양한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다. 엑스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촉진 및 이미지 개선 등 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엑스포의 개최는 지역발전의 기회요소이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인력,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사후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행사후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산 인삼산업의 활성화, 인삼 중심지로서의 금산 위상제고 및 도시발전촉진을 목표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인삼 수출 촉진, 내수기반 저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금산군 브랜드가치 향상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엑스포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었던 주요 엑스포와 행사장의 사후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및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수행한 박철희 책임연구원, 박근수교수 및 연구의 완성을 위해 자문을 해주신 도관계자, 자문위원 그리고 자료정리에 참여해준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웅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3. 연구 진행 과정 ····· 4

4. 용어의 정의 ····· 5

1) 박람회(博覽會) ····· 5

2)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 ····· 5

제 2 장 금산읍 일반현황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요 ····· 8

1. 금산읍 일반현황 ····· 8

1) 입지여건, 지형지세 및 기후 ····· 8

2) 인구 ····· 10

3) 지역경제 ····· 13

4)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 ····· 15

5) 공간구조 및 물리적 환경 ····· 18

6) 지역자원 ····· 21

2.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요와 현황 ····· 25
1) 개최 배경 ····· 25
2) 개요 ····· 25
3) 추진체계 ····· 27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현황 ····· 28
5) 엑스포 행사 추진 ····· 33

제 3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과와 과제 ····· 34

1.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요성과 ····· 34
1) 개최목적 및 사업 ····· 34
2) 이벤트·학술행사 및 홍보 ····· 36
3) 행사지원 ····· 37
4) 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 37
5) 개최의의 ····· 38

2. 과제 ····· 39
1) 행사진행 상의 과제 ····· 39
2) 중장기적 과제 ····· 39

제 4 장 국내외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사례 분석 ····· 41

1. 분석의 항목 설정 ····· 41
1)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 ····· 41
2) 부지의 사후 활용 측면 ····· 43
3) 행사장의 입지적 특성 ····· 44

2. 국내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45
1) '93 대전 엑스포 ····· 45

2)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 46
3)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 48
4)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 50
5)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 51
6)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이천 주 행사장) ····· 53

3. 국외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55
1) SPAIN SEVILLA EXPO '92 ····· 55
2) ITALY GENOA EXPO '92 ····· 56
3) PORTUGAL LISBON EXPO '98 ····· 58
4) GERMANY HANNOVER EXPO 2000 ····· 59

4. 분석 종합 ····· 61
1) 시설의 활용 측면 ····· 61
2) 부지의 활용 측면 ····· 62
3) 입지특성 및 기타 ····· 63

제 5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사후활용방안 ····· 65

1. 기본방향 ····· 65

2.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전략 ····· 67

3. 엑스포 행사장 활용방안 ····· 69
1) 현황 ····· 69
2) 문제점 ····· 70
3) 활용방안 ····· 70

4. 국제인삼유통센터(GINDEX) 활용방안 ····· 72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72
2) 문제점 ····· 78

3) 활용방안 ····· 78

5. 금산인삼관 활용방안 ····· 81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81

2) 문제점 ····· 82

3) 활용방안 ····· 82

제 6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후 도시 관리 방안 ····· 85

1. 도시기능과 역할 정립 ····· 85

2.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발전방안 ····· 86

1) 도시공간구조 구상 ····· 86

2) 정비권역 구분 및 권역별 관리방안 ····· 89

3.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 개발정비방안 ····· 95

1)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95

2) 기본구상 ····· 98

3) 도시정비대안 설정 및 검토 ····· 101

< 참고 문헌 > ····· 107

부록 1. ····· 108

1. 행정복합타운 사례 검토 :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 108

2. 금산군 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이전 ····· 110

표 목차

<표 1-1>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의 목표와 추진전략 ····· 2
<표 1-2> 사례분석 범위 및 대상 ····· 3
<표 1-3>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 ····· 7
<표 2-1> 인구 현황 ····· 10
<표 2-2>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11
<표 2-3> 인구구조 변화추이 ····· 12
<표 2-4> 금산읍의 사업체수 및 변화추이 ····· 13
<표 2-5> 금산시·금산읍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 13
<표 2-6> 금산읍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14
<표 2-7> 주택 현황 ····· 15
<표 2-8> 상·하수도 현황 ····· 15
<표 2-9> 의료기관 현황 ····· 16
<표 2-10> 교육시설 현황 ····· 16
<표 2-11> 교원 1인당 학생수 ····· 17
<표 2-12> 사회복지시설 현황 ····· 17
<표 2-13> 지목별 현황 ····· 18
<표 2-14> 도시계획 현황 ····· 18
<표 2-15> 도로현황 ····· 19
<표 2-16> 문화시설 현황 ····· 21
<표 2-17> 문화재 현황 ····· 21
<표 2-18> 관광객 변화추이 ····· 22

<표 2-19> 자원의 주제별 구분 ····· 23
<표 2-20>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개요 ····· 26
<표 2-21>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개요 ····· 27
<표 2-22>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현황 ····· 30
<표 2-23> 구역별 세부시설 현황 ····· 32
<표 3-1> 수익사업 목표 및 실적 ····· 36
<표 3-2>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교통 인프라 확충현황 ····· 39
<표 4-1> 시설의 사후 활용 용도분류 ····· 43
<표 4-2> '93 대전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47
<표 4-3>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48
<표 4-4>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0
<표 4-5>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1
<표 4-6>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3
<표 4-7>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5
<표 4-8> SPAIN SEVILLA EXPO '92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6
<표 4-9> ITALY GENOA EXPO '92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8
<표 4-10> PORTUGAL LISBON EXPO '98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59
<표 4-11> GERMANY HANNOVER EXPO 2000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 61
<표 5-1>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세부시설 및 용도 ····· 74
<표 5-2>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위탁신청 회사 ····· 78
<표 6-1> 금산읍 정비권역의 구분 ····· 90
<표 6-2> 행정복합타운 도입가능시설 ····· 101
<표 6-3> 도시정비방안 비교 검토 ····· 107
<표 8-1>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요 ····· 110
<표 8-2>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계획 ····· 110
<표 8-3> 자동차정류장 현황 ····· 111
<표 8-4>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설치 가능여부 ····· 112

그림 목차

<그림 2-1> 위치도 ····· 8
<그림 2-2> 행정구역도 ····· 8
<그림 2-3> 금산읍 표고 및 수계 ····· 9
<그림 2-4> 교통체계도 ····· 20
<그림 2-5> 주요시설 현황도 ····· 24
<그림 2-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 28
<그림 2-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무처 조직 ····· 28
<그림 2-8>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주변현황도 ····· 29
<그림 2-9>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공간구성도 ····· 31
<그림 5-1>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 70
<그림 5-2> 생산/유통동(우측동) 및 지원동(좌측동) ····· 74
<그림 5-3> 국제인삼유통센터의 금산센터의 Flow ····· 77
<그림 6-1> 기능배치구상 ····· 89
<그림 6-2> 권역별 관리방안 ····· 95
<그림 6-3> 중점정비권역 대상지역 ····· 96
<그림 6-4> 중점정비권역 현황도 ····· 98
<그림 6-5> 대안-1 한방·약초 밸리 조성안 ····· 103
<그림 6-6> 대안-2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안 ····· 104
<그림 6-7> 대안-3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안 ····· 105
<그림 8-1>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배치도 ····· 109
<그림 8-2>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 109
<그림 8-3> 자동차정류장 현황 ····· 111

사진 목차

<사진 5-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 70
<사진 5-2> 금산인삼테마공원 후보지인 건강체험관 ····· 72
<사진 5-3> 금산인삼테마공원 후보지인 건강체험관 입구 ····· 72
<사진 5-4> 인삼유통센터 전경 ····· 73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엑스포 개최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촉진 및 이미지 개선 등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993년 국제공인 엑스포인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최근 다양한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인력,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사후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행사 후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금산 인삼산업의 활성화, 인삼 중심지로서의 금산 위상제고 및 도시발전촉진을 목적으로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였다.

2002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목표는 첫째, 인삼수출 촉진 및 내수기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확산, 셋째, 금산 약령시장의 국제화실현 기반마련, 넷째, 고려인삼 거래중심지로서의 금산군 브랜드가치 향상 등이다.

이에, 본 연구의 배경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엑스포 행사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표 1-1〉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의 목표와 추진전략

목표	○ 인삼수출 촉진 및 내수기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확산 ○ 금산약령시장의 국제화실현 기반마련 ○ 고려인삼 거래중심지로서의 금산군 Brand-Image Up
추진전략	○ 인삼관련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및 신상품개발 유도 ○ 국내·외 학술회의를 통한 고려인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 부각 ○ 교역상담회를 통한 우수바이어 적극 유치 ○ 인삼재래시장의 수준향상 및 인삼종합유통센터와 연계도모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주요 엑스포들의 사후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및 주변지역의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장 및 시설물의 사후 활용방안 모색한다.

둘째, 엑스포 개최 전후하여 도시변화를 검토하고 예측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금산읍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06년도에 개최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국내·외 엑스포 행사 후 행사장 활용사례를 분석하되, 본 연구의 시간적인 한계상 90년대 초반부터 개최된 주요 엑스포로 한정한다.

국내 사례로는, 국내 최초의 공인 엑스포인 대전 엑스포(1993년)을 포함하여 2006년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비공인 엑스포를 포함하여 분석하며, 국외사례로는 1990년 이후 BIE 공인엑스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사후 활용사례에 대한 분석은 문헌연구, 엑스포 관련자료 분석,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접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표 1-2〉 사례분석 범위 및 대상

사례분석 범위	세부 조사 대상	
사후 활용 실태 조사	국내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93 대전 엑스포 • '97,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 '98, 2000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 '99 강원 국제 관광엑스포 • '99 하남 국제 환경엑스포 •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국외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SPAIN SEVILLA EXPO '92 • ITALY GENOA EXPO '92 • PORTUGAL LISBON EXPO '98 • GERMANY HANNOVER EXPO2000

3. 연구 진행 과정

연구과정	세부 연구 내용	
연구 개요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방법 설정
선행 연구 검토	Expo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 도시공간구조 측면 • 경제적 측면 및 기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황조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황, 성과와 과제	•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황 • 주요성과와 과제
국내·외 사후 활용 실태 조사	국내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93 대전 엑스포 • '97,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 '98, 2000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 '99 강원 국제 관광엑스포 • '99 하남 국제 환경엑스포 •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국외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 SPAIN SEVILLA EXPO '92 • ITALY GENOA EXPO '92 • PORTUGAL LISBON EXPO '98 • GERMANY HANNOVER EXPO2000
행사장의 사후활용방안	Expo 행사장 사후 활용방안	• 시설 및 부지 활용 측면 • 입지 및 기타
도시관리방안	도시발전방향과 관리방안	• 도시공간적, 토지이용적 측면 • 용도적 측면 및 기타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결과 종합 및 향후과제	• 연구결과 시사점 및 향후과제 • 정책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

4. 용어의 정의

1) 박람회(博覽會)

박람회는 한자로는 博覽會라 하며, 영어로는 EXPO, Exposition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 농・공・상업 등에 관한 온갖 물품을 공중에게 관람시켜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회라고 정의한다. 또한,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공업 등의 온갖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엑스포 협약[2)]에서는 박람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람회는 일반 대중의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엑스포에서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할 수 있고, 특정 또는 제반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상을 전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엑스포란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업적에서 개별 분야별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나도록 종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국민계몽과 국가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열리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용화된 용어로서 박람회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박람회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행사였지만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영역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산업부분은 전시회를 통해 치러지고, 문화부분은 박람회에서 주로 치러지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 전시회를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박람회가 가진 본연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단지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단지 규모가 크다고 하여 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

박람회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박람회 기구의 기준에 의한 공

---

1) 금성출판사, 뉴에이스 국어사전, 1999

2)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1928년 프랑스 파리에 31개국의 대표가 모여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조인하였으며 협약 제1조에 박람회(Expo)가 정의되어 있다.

인 엑스포로 개최시기와 기간, 행사장의 면적 등에 따라 대규모의 등록엑스포와 중규모의 인정엑스포로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엑스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하여 새로운 형태로 생겨난 소규모 엑스포인 비공인 엑스포이다.

(1) 공인 박람회

가.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

국제 박람회기구(BIE)에 등록하고 공인을 받아 개최하는 엑스포로 이는 주로 외교채널을 통하여 출품국을 유치하는데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출품하는 국가가 국가관(National Pavilion)을 만들어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박람회는 5년을 주기로 개최하며, 전시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또한 엑스포단지의 규모와 주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인류활동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나.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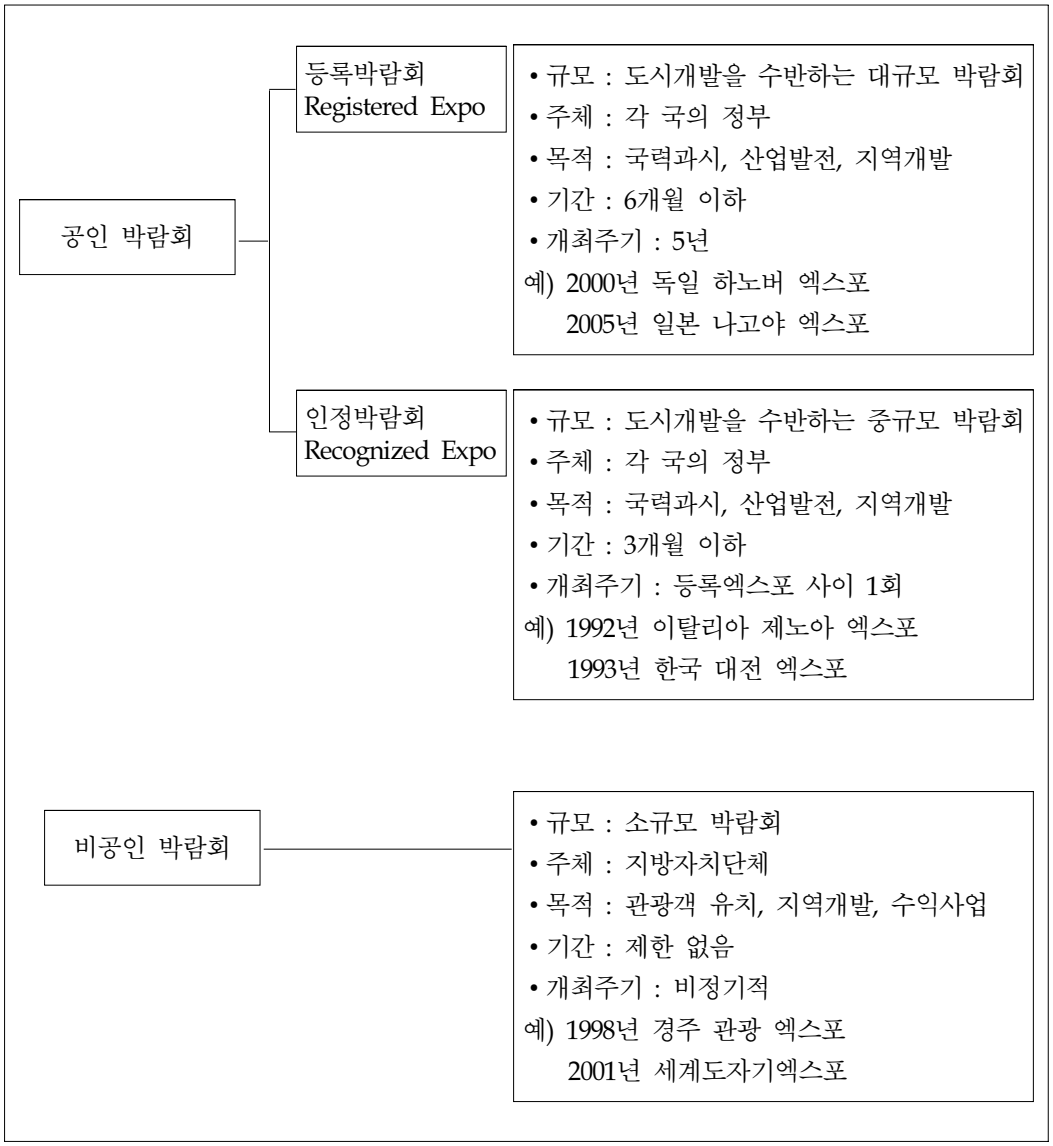
양 등록 엑스포가 개최되는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개최하며 3개월을 기본 개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전시구역은 250,000㎡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류활동 중 특정부분을 대상으로 명확한 주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정엑스포는 사실상 자유박람회로 전환되어 세계 곳곳에서 나름대로의 테마와 특징을 찾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출품국 유치도 외교경로를 통하는 방법과 박람회 전문업체에서 직접 외국에 홍보하여 유치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2) 비공인 박람회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을 받지 않은 엑스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엑스포를 의미한다.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이미지 개선, 지역산업의 활성화, 관광객의 유치, 경영수익사업 창출 등의 목적을 가진 지역 이벤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박람회 사무국이 공인엑스포가 아닌 경우 회원국의 참가를 제한하므로, 비공인 엑스

포는 정부에서 실시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규모에 있어 국제 공인 엑스포보다 소규모로 진행된다.

〈표 1-3〉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



제 2 장 금산읍 일반현황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요

1. 금산읍 일반현황

1) 입지여건, 지형지세 및 기후

(1) 입지

금산읍은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충청남도의 최남단이자 대전광역시 근교에 위치하여 대도시민의 관광·위락·전원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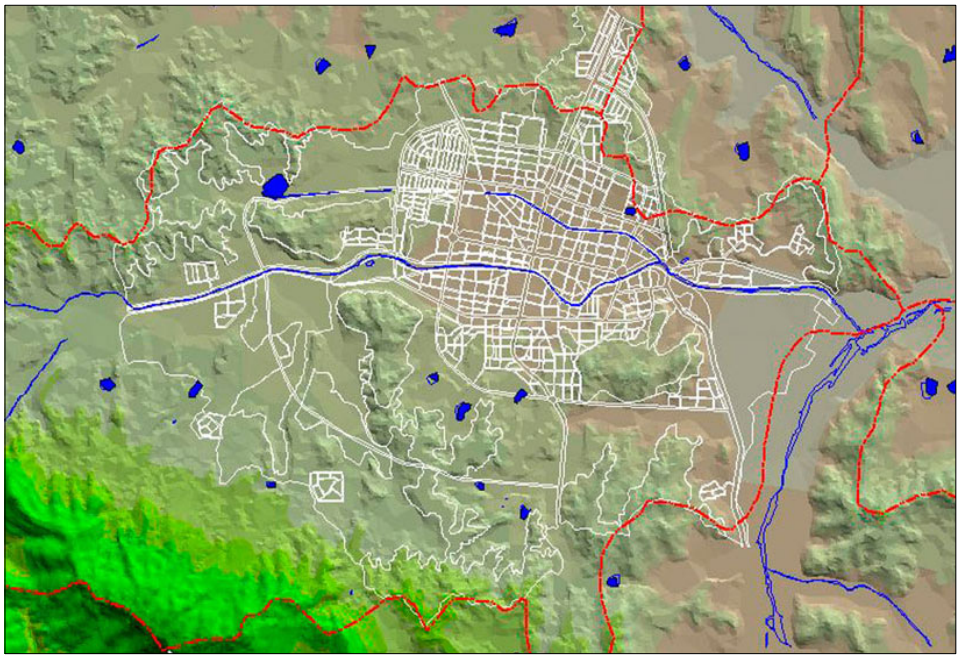
〈그림 2-1〉 위치도

〈그림 2-2〉 행정구역도

(2) 지형・지세

금산군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m로 충남의 평균 해발고도보다 2.5배 높다. 동쪽으로는 추부면의 서대산(904m), 매봉, 제원면의 천앙산(502m), 국사봉(667m), 부리면 성주산(624m)과 양각산(567m)이 위치하고 있어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남이면 서대봉(759m), 진산면 오대산(569m), 대둔산(878m)이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시를 분리시키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부리면 기봉(537m), 갈선산(456m), 수로봉(505m), 남일면의 덕기봉과 갈미봉(495m), 선봉 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복수면 안평산(470m), 추부면 만인산(537m), 지봉산(464m) 등이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산읍의 지형・지세는 진악산을 비롯한 다양한 산지가 금산읍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금산천, 후곤천, 기사천, 봉황천의 4대 하천은 친환경도시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대둔산 등 금산읍 주변의 주요 산지의 임상이 침엽수와 활엽수, 혼효림이 각 30% 정도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의 연출 및 편안함을 제공해 주며, 금산읍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주민에게 맑고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2-3〉 금산읍 표고 및 수계



(3) 기후

한반도 남단의 가장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남부 내륙형 기후로 분류되며, 또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한서(寒暑)의 차가 크고 지형성 강우량이 비교적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연평균 기온은 11.5℃이고, 7월 평균기온이 25.0℃로 가장 높고 1월 평균기온은 -2.3℃로 가장 낮다.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하며 풍향은 남서풍이 우세하다.

2005년 강수량은 1,375.04㎜로 대부분이 7월~8월에 집중되며, 평균 상대 습도는 65.1%이며, 품질 좋은 인삼의 재배에 필요한 계절별 적정한 강수량, 강설량 등의 기후조건과 배수가 잘되는 토양조건 등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곡물보다는 인삼 및 생약초 등의 특수작물이 유명한 지역이다.

2) 인구

(1) 인구규모

금산읍의 인구는 2005년 현재 23,922명으로 금산군 전체인구 59,014명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96~2005년 사이에 금산군이 연평균 -2.2%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에, 금산읍은 연평균 -0.5% 감소하는 등 금산군 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인구증가율		
											96-05	96-00	01-05
금산군	72,114	70,253	67,911	65,495	64,785	63,238	61,704	61,256	60,620	59,014	-2.20	-2.64	-1.71
금산읍	25,027	25,522	25,046	24,664	25,321	25,343	25,100	24,558	24,518	23,922	-0.50	-0.29	-1.43

주 : 외국인 포함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년도.

(2) 인구구조

2005년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금산읍의 총인구는 23,92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2,124명, 여자 11,798명으로 성비(여자 100인당 남자인구수)는 1.02로 남자가 다소 많은 편이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14세 이하의 소년인구가 4,603명으로 전체의 약 19.2%,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16,443명으로 전체의 약 68.7%, 노령인구가 2,876명으로 약 12.0%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에 의한 생산연령 인구대비 소년인구와 노령인구의 비율인 부양인구비는 45.48%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지수는 62.4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 명, %)

구분	합계		남		여		비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합	23,922	100.00	12,124	100.00	11,798	100.00	
0-4세	1,275	5.33	658	5.43	617	5.23	4,603 (A)
5-9세	1,760	7.36	938	7.74	822	6.97	
10-14세	1,568	6.55	843	6.95	725	6.15	
15-19세	1,400	5.85	740	6.10	660	5.59	16,443 (B)
20-24세	1,752	7.32	970	8.00	782	6.63	
25-29세	1,730	7.23	926	7.64	804	6.81	
30-34세	1,914	8.00	1,034	8.53	880	7.46	
35-39세	1,929	8.06	1,015	8.37	914	7.75	
40-44세	1,769	7.39	946	7.80	823	6.98	
45-49세	1,822	7.62	924	7.62	898	7.61	
50-54세	1,529	6.39	757	6.24	772	6.54	
55-59세	1,376	5.75	667	5.50	709	6.01	
60-64세	1,222	5.11	538	4.44	684	5.80	
65-69세	1,090	4.56	490	4.04	600	5.09	2,876 (C)
70-74세	847	3.54	368	3.04	479	4.06	
75-79세	497	2.08	170	1.40	327	2.77	
80-84세	287	1.20	98	0.81	189	1.60	
85세 이상	155	0.65	42	0.35	113	0.96	
부양인구율	45.48% ((A+C)/B)x100						
노령화지수	62.48% (C/A)x100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는 20~24세 미만의 연령대와 0~4세 미만, 그리고 10~14세 미만의 연령대로 특히 청소년기인 15~19세가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부양인구비는 연평균 1.57%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노령화지수는 6.12%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인구구조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총합	24,999	25,492	25,015	24,630	25,281	25,299	25,058	24,498	24,518	23,922	-0.48
0-4세	1,654	1,796	1,781	1,663	1,822	1,795	1,698	1,545	1,458	1,275	-2.85
5-9세	1,584	1,672	1,678	1,714	1,790	1,832	1,866	1,844	1,791	1,760	1.17
10-14세	1,941	1,800	1,601	1,558	1,527	1,487	1,505	1,502	1,585	1,568	-2.34
15-19세	2,571	2,522	2,347	2,140	1,971	1,831	1,671	1,547	1,492	1,400	-6.53
20-24세	2,580	2,515	2,327	2,212	2,224	2,227	2,147	2,052	1,911	1,752	-4.20
25-29세	2,134	2,250	2,237	2,192	2,174	2,064	1,936	1,750	1,792	1,730	-2.30
30-34세	1,732	1,849	1,901	1,896	2,133	2,240	2,188	2,108	2,076	1,914	1.11
35-39세	2,032	2,013	1,973	1,958	1,930	1,812	1,846	1,818	1,841	1,929	-0.57
40-44세	1,684	1,748	1,784	1,744	1,871	1,999	1,950	1,896	1,934	1,769	0.54
45-49세	1,432	1,466	1,415	1,500	1,545	1,645	1,707	1,796	1,769	1,822	2.71
50-54세	1,343	1,279	1,297	1,348	1,454	1,397	1,437	1,384	1,488	1,529	1.45
55-59세	1,289	1,431	1,417	1,324	1,293	1,285	1,227	1,270	1,322	1,376	0.72
60-64세	1,127	1,139	1,136	1,183	1,208	1,231	1,353	1,351	1,263	1,222	0.90
65-69세	703	751	830	877	958	1,034	1,038	1,051	1,086	1,090	4.99
70-74세	553	580	584	589	606	618	652	721	793	8,47	4.85
75-79세	347	369	385	398	424	433	450	456	474	497	4.07
80-84세	201	206	212	224	232	233	240	258	280	287	4.03
85세 이상	92	106	110	110	119	136	147	149	163	155	5.96
부양인구비	39.5%	40.0%	40.3%	40.8%	28.9%	42.7%	43.5%	44.3%	45.18%	45.48%	1.57
노령화지수	36.6%	38.2%	41.9%	44.5%	45.5%	48.0%	49.9%	53.9%	57.84%	62.48%	6.12

자료: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년도

3) 지역경제

(1) 지역산업현황

금산읍의 사업체 수는 97년 3,038개에서 2004년 현재 2,712개에서 연평균 1.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사자수는 7,991명에서 6,807명으로 연평균 2.26%씩 감소하여 읍의 산업 및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취업인구는 6,807명이며, 이중 1차산업 종사자는 20명으로 0.29%, 2차산업 종사자는 829명으로 12.17%, 3차산업 종사자는 5958명으로 87.54%를 차지하고 있어, 3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서비스 중심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2-4〉 금산읍의 사업체수 및 변화추이 (단위 : 개수, %)

구분	사업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7/04 연평균 증감율
금산군	4,758	4,655	4,655	4,545	4,584	4,371	4,506	4,459	-0.92
금산읍	3,038	2,945	2,945	2,858	2,920	2,735	2,739	2,712	-1.61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년도

〈표 2-5〉 금산시·금산읍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종사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7/04 연평균 증감율
금산군	16,611	16,904	16,904	17,802	17,546	17,546	17,967	17,202	0.50
금산읍	7,991	7,953	7,953	8,099	8,009	7,896	7,166	6,807	-2.26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년도

〈표 2-6〉 금산읍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수, 명, %)

구 분	금산읍				금산군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개수	비율	명	비율	개수	비율	명	비율
전 산 업	2,712	100	6,807	100	4,459	100	17,202	100
A.농업및임업	3	0.11	20	0.29	6	0.13	32	0.19
B.어업	-	-	-	-	-	-	-	-
C.광업	-	-	-	-	4	0.09	79	0.46
D.제조업	263	9.70	558	8.20	680	15.25	6,188	35.97
E.전기,가스및수도사업	1	0.04	28	0.41	2	0.04	32	0.19
F.건설업	65	2.40	271	3.98	108	2.42	566	3.29
G.도소매업	1,296	47.79	1,990	29.23	1,605	35.99	2,608	15.16
H.숙박및음식점업	389	14.34	771	11.33	777	17.43	1,653	9.61
I.운수업	136	5.01	271	3.98	235	5.27	421	2.45
J.통신업	8	0.29	88	1.29	19	0.43	208	1.21
K.금융및보험업	30	0.11	371	5.45	49	1.10	529	3.08
L.부동산업 및 임대업	37	0.36	107	1.57	59	1.32	140	0.81
M.사업서비스업	29	1.07	103	1.51	47	1.05	692	4.02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	0.44	675	9.92	40	0.90	928	5.39
O.교육서비스업	62	2.29	536	7.87	118	2.65	1375	7.99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	2.21	375	5.51	92	2.06	487	2.8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63	2.32	115	1.69	102	2.29	270	1.57
R.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8	9.51	528	7.76	516	11.57	994	5.78

주 : 자료 기준년도 2004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4)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

(1) 주택

2005년 말 현재 금산읍의 주택보급률은 103.7%로 충남평균 129%과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표 2-7〉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세대수	합계	주택 보급률 (%)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995	18,932	17,831	94	15,344	1,075	685	280	-	-	447
				86.05%	6.03%	3.84%	1.57%	-	-	2.51%
2000	22,478	22,658	101	18,461	3,080	459	616	42	-	-
				81.48%	13.59%	2.03%	2.72%	0.18%	-	-
2001	20,230	19,213	95	14,415	2,724	974	132	-	884	84
				75.03%	14.18%	5.07%	0.69%	-	4.60%	0.43%
2003	2,235	24,129	105.2	18,990	3,238	439	646	816	-	-
				78.70%	13.42%	1.82%	2.68%	3.38%		
2004	23,479	24,254	103.0	19,789	3,238	455	774	911	-	-
				81.59%	13.35%	1.88%	3.19%	3.76%		
2005	23,499	24,380	103.7	18,804	3,238	558	855	925	-	-
				77.13%	13.28%	2.29%	3.51%	3.79%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년도

(2) 상・하수도

금산읍의 상수도 보급율은 98.2%로 금산군의 56.6%, 충남의 63.3%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8〉 상・하수도 현황

구분	지역 도시 내 인구(인)	상수도					하수관거설치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시설면적 (km)
금산군	59,014	33,024	56.6	16,500	16,898	511	578.33
금산읍	24,013	23,590	98.2	12,000	11,426	484	

자료 : 금산시, 금산통계연보, 2006

(3) 의료기관

금산읍에는 종합병원은 없으며, 의료기관 전체 병상 1개당 81.4인과 의료기관종사자 1인당 94.0인으로 금산군이나 충청남도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

〈표 2-9〉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의료기관 전체 병원수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	의료기관 종사자수	의료 기관 전체 병상 1개당 인구	의료 기관 종사자 1인당 인구
금산군	56	473	314	-	-
금산읍	43	294	265	-	-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4) 교육시설

금산읍에는 대학교는 없으나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4,755명이 재학 중이며, 대학교는 중부대학교가 인근 추부면에 위치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충청남도나 금산군에 비해 높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금산군	19	510	36	18	3,460	233	9	1,585	137	4	1,430	134	1	10,104	174
금산읍	4	307	18	4	2,201	88	3	1,057	70	3	1,190	109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표 2-11〉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금산군	14.2	14.8	11.6	10.7	58.1
금산읍	17.1	25.0	15.1	10.9	-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5) 복지시설

금산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319가구 4,256명이고 복지시설은 개소(수용인원 79명)이며, 금산읍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43가구 1,368명으로 29.62%를 차지하나 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1개소(수용인원 26명)로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2〉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구	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금산군	2,319	4,256	9	3	79	6	126
금산읍	643	1,368	1	-	-	1	26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5) 공간구조 및 물리적 환경

(1) 토지이용

가. 토지이용

금산읍의 면적은 21.65㎢로 금산군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임야의 비율이 70.76%로 높은 반면 금산읍은 임야의 비율이 44.99%이며, 전이 17.58%, 답이 17.30%, 과수원 0.32%로 농업적 토지이용 면적이 35.20%(금산군 19.45%)이며, 대지 7.93%, 공장용지 0.37%, 학교용지 0.83%, 도로 3.80%로 도시적 토지이용이 12.93%(금산군 2.37%)로 충남지역의 소도읍 중에서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지목별 현황 (단위 : ㎢, %)

구분		총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도로	하천	제방	기타
금산군	면적	576.28	51.25	58.59	407.77	8.62	2.81	12.46	16.72	0.29	17.77
	비율	100.00%	8.89%	10.17%	70.76%	1.45%	0.49%	2.16%	2.90%	0.05%	3.08%
금산읍	면적	21.56	3.79	3.73	9.70	1.71	0.08	0.82	0.62	0.02	1.09
	비율	100.00%	17.58%	17.30%	44.99%	7.93%	0.37%	3.80%	2.88%	0.09%	5.06%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나. 도시계획

금산읍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금산군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17.87㎢)의 77.2%인 13.30㎢이며, 이는 금산읍 전체 면적의 61.7%에 해당한다. 금산읍은 주거지역이 22.2%, 녹지지역이 78.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4〉 도시계획 현황 (단위 : ㎢, ㎡)

구 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계	미관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산군	17.87	3.75	0.38	0.13	13.61	-	176.9	29.4	147.5
금산읍	13.30	2.96	0.32	0.13	10.38		141.6	29.5	112.1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2) 교통망 체계

도시간의 광역적 연결망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17호, 37호) 및 지방도(635, 725, 795, 601호) 등의 지역간도로가 담당하며, 금산읍에서 방사형체계를 이루면서 주변도시 및 주변생활권을 연결하고 있다.

시가지 내부적으로는 자연발생도로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격자형 계획도로가 혼재하는 혼합형 가로망 체계를 이루고 있다.

금산읍의 주요 개발축인 남일~금산~추부와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동서남북의 각각의 지점에 문화복지, 산업, 생활, 체육 등 4대 거점을 설정하여,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기능배분에 의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거점지역 및 생활권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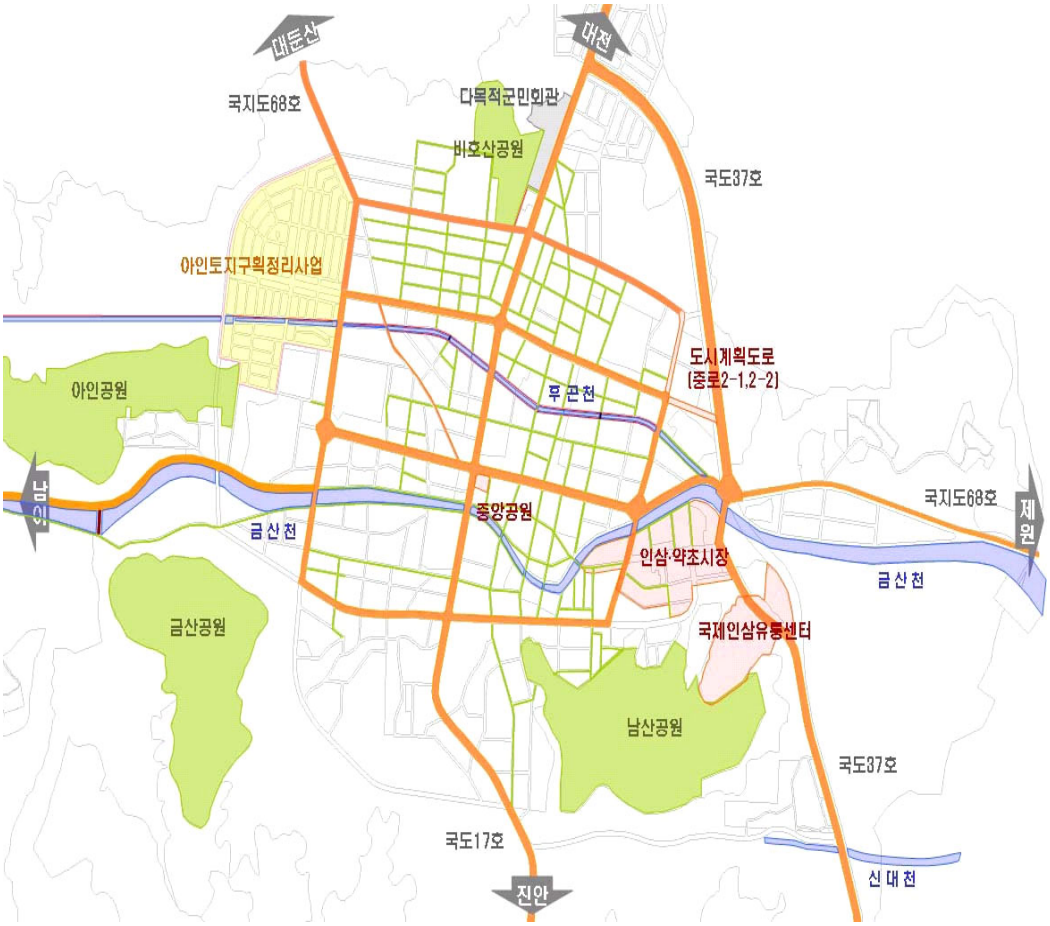
최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금산IC로부터 금산읍까지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5〉 도로현황

구 분	총연장(m)	고속도로(m)	일반국도(m)	지방도(m)
금산군	325,300	26,000	62,700	236,600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그림 2-4〉 교통체계도


대둔산
대전
국지도68호
다목적군민회관
비호산공원
국도37호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도로
(중로2-1,2-2)
후곤천
아인공원
남인
중앙공원
금산천
국지도68호
제원
인삼·약초시장
금산천
금산공원
국제인삼유통센터
남산공원
국도37호
국도17호
신대천
진안

6) 지역자원

(1) 문화시설

금산군에는 공공도서관이 2개소 있고, 문화공간은 영화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문화원 등 총 4개소로서 절대적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체육시설은 경기장 1개소, 골프장 1개소, 신고체육시설 56개소 등 58개소이며, 이 중에서 46개의 시설이 금산읍에 집중되어 있다.

〈표 2-16〉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체육시설			
			소계	영화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문화원	소계	종합경기장	골프장	신고체육시설
금산군	64	2	4	1	1	1	1	58	1	1	56
금산읍	48	1	1	-	-	-	1	46	1	-	45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2) 역사문화자원

금산군의 문화재는 총 37개로 국가지정문화재 5개, 지방지정문화재 13개, 문화재 자료 19개소가 분포하며, 금산읍의 경우 기념물 2개, 문화재자료 3개로 읍내 문화재자원은 적으나 인접한 면지역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표 2-17〉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주요무형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금산군	37	5	1	1	2	1	13	5	5	3	19
금산읍	5	-	-	-	-	-	2	-	2	-	3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수려한 자연자원, 칠백의총 등의 다양한 자연·역사자원과 대전과의 양호한 접근성, 인삼축

제 등으로 인해 관광객수가 '98년의 964,943명에서 2005년에는 1,592,506명으로 연평균 7.42% 씩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수가 1998년 20,132명에서 2005년도에는 7,599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2-18〉 관광객 변화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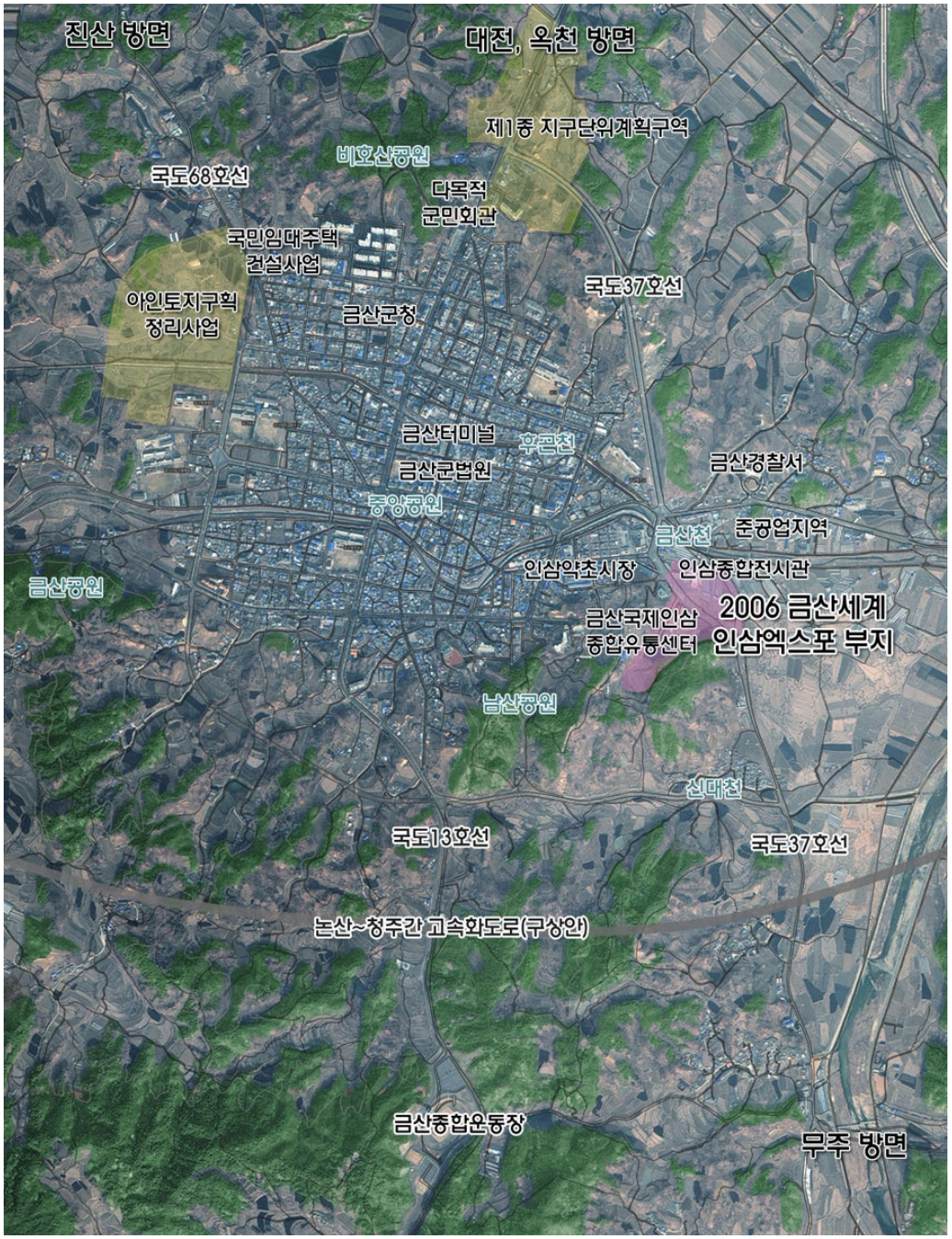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1998	964,943	944,811	20,132
1999	968,152	947,958	20,194
2000	985,390	965,156	20,234
2001	1,142,212	1,120,731	21,481
2002	1,438,531	1,422,788	15,743
2003	1,357,522	1,347,973	9,549
2004	1,352,346	1,342,290	10,056
2005	1,592,506	1,584,907	7,599
연평균 증가율	7.42%	7.67%	-12.99%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6.

〈표 2-19〉 자원의 주제별 구분

구분	종류	자원명	소재지	비고
경관 자원	산, 구릉	진악산, 비호산, 남산, 월봉산, 열두봉재, 보티재		
	하천	금산천, 후곤천, 기사천, 봉황천		
	수리시설	상수도정수장	신대리	
		상지말지		
	공원	예비군공원, 아인공원, 상옥공원, 비호산공원, 금산천공원, 체육공원, 봉황천공원, 봉황공원, 금성산공원		
전통 역사 자원	향교	금산향교(조선 숙종10년)	상리	도지정기념물 제121호
	불교건축	대원정사(조선 후기)	상리 45-5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37호
		보광사	음지리 579-15	
		충열사	하옥리	
	탑	아인리탑(고려시대)	아인리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27호
문화적 자원	전시장	인삼종합전시장	신대리	
	커뮤니티 시설	청산회관	중도리 204-8	
		금산문화원	상리 176-43	
	상징탑	금산인삼탑	상리	
	전망대	남산 해뜨는집	남산	
경제적 자원	특화상가	인삼약초도매센터	중도리	
		인삼조합	중도리	
		인삼생약시장	중도리 24	
		금산수삼센터	중도리	
		금산국제인삼쇼핑센터	중도리	
		인삼약초쇼핑센터	중도리	
		금산 인삼약초의 거리	중도리	
		금산 인삼약초시장	중도리	
	시장	하옥시장	하옥리 355-15	
	기타	인삼호텔	중도리	
무형 자원	음식	금산인삼, 금산인삼주, 인삼약초요리, 인삼약초차		
	문화행사	금산인삼축제, 장동달맞이축제, 금산농악		
	기타	인삼약초 정보화 시범마을, 아젠다 기념품		

〈그림 2-5〉 주요시설 현황도



2.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요와 현황

1) 개최 배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배경은 외국삼의 저가 물량공세와 고려인삼이 체열을 상승시킨다는 경쟁국의 논리 등으로 해외수출이 급격히 감소[3]하고 있다. 또한 , 2005년 이후 WTO의 DDA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평균 40~60% 관세 감축과 수입물량 확대로 인하여 국내 인삼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 충남 금산의 인삼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인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다.

2) 개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정식명칭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영문 : 2006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이다. 엑스포 성격은 비공인 엑스포로서 충청남도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산업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사기간은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24일간이다. 장소는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으로서 회장 규모는 129천평으로 주행사장 3만3천평, 부행사장 4만3천평, 주차장 5만3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최는 충청남도이며, 주관은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행사주제는 "생명의 뿌리, 인삼(Ginseng, Root of Life)"이며, 부제는 "인삼, 그 가치의 재발견"이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서 인삼과 관련된 학술, 교역, 전시, 이벤트, 체험행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관람객 유치는 총660천명(내국인 647천명, 외국인1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시참가 15개국 80개 업체와 해외 바이어 100명을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산인삼에 대한 전시홍보와 함께 인삼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3) 해외수출의 급격한 감소 ※ 수출 : 1990(165백만$) ⇒ 2005(82백만$)

〈표 2-20〉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개요

○ ´02.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타당성조사(삼성경제연구소)

○ ´03. 3 기본계획 연구용역
○ ´03. 4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통과
○ ´03. 5 기본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착수 (´03.6)
○ ´03. 8. 국제행사승인(국무총리실), 농림부 지원결정
○ ´03. 9.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공포
○ ´03. 10.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발기인대회
○ ´03. 11. 道지원단 구성(단장 : 정무부지사, 분야별 10팀)
○ ´03. 12. 기본설계 완료

○ ´04. 1.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 출범
○ ´04. 10. 민간조직위원장 취임, 조직위원 위촉(35명)
○ ´04. 11. 회장조성(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실시설계 착수

○ ´05. 2. 국제인삼심포지엄 위탁협약(고려인삼학회)
○ ´05. 7. 홍보대행사 선정
○ ´05. 8. 실시설계 완료, 이벤트대행사 선정, 편입용지 보상착수
○ ´05. 9. 범도민지원협의회 발족(256명), 참가유치위탁협약(aT)
교역상담회 위탁협약(aT, KOTRA)
○ ´05. 10. 토목・건축・조경공사 착공, 전시참가유치단 구성(5명)
○ ´05. 11. 전기・통신공사 착공, 전시연출 실시설계 완료
○ ´05. 12. 인삼음식관 전시계획 확정

○ ´06. 1. 국내인삼학술회의 위탁협약(한국약용작물학회)
○ ´06. 2. 조직위원총회 개최, 농협중앙회 후원(4억원)
○ ´06. 4. 회장경비 및 도우미 업체 선정
○ ´06. 5. 사무처 현장이전(5. 25), 입장권 예매착수
○ ´06. 9. 22 ~ 10. 15 사무처 현장이전(5. 25), 입장권 예매착수

〈표 2-21〉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 2006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 성　　격 : 인삼을 주제로 한 산업박람회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박람회에 건강과 이벤트 조화

○ 기　　간 : 2006. 9. 22(금) ~ 10. 15(일), 24일간

○ 장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
- 회장규모 : 129천평(인삼약초시장 43천평 포함)

○ 주　　최 : 충청남도

○ 주　　관 :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 주　　제 : 생명의 뿌리, 인삼(Ginseng, Root of Life)
- 부　제 : 인삼, 그 가치의 재발견

○ 유치목표
- 관 람 객 : 660천명(내국인647, 외국인13)
- 전시참가 : 15개국 80개 업체
- 바 이 어 : 해외 100명

○ 사 업 비 : 130억원 (국비35, 지방비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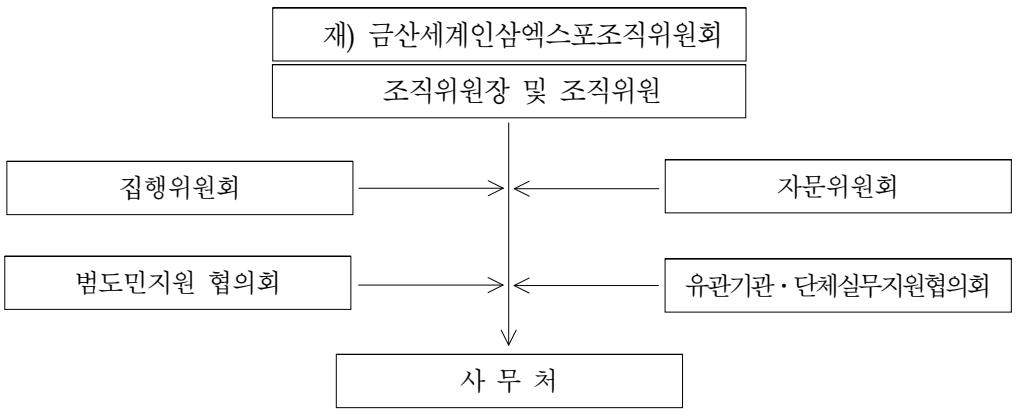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학술, 교역, 전시, 이벤트, 체험 등

○ 후　　원 : 농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주)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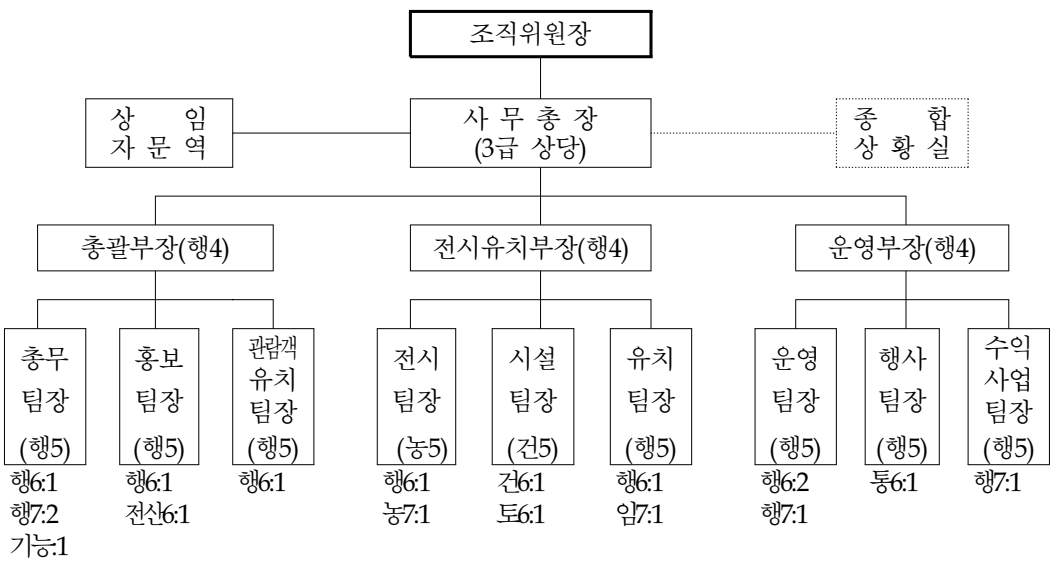
3) 추진체계

금산 세계 엑스포는 충청남도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자문 및 협의기구로서 자문위원회, 범도민지원 협의회, 유관기관·단체실무지원협의회 등을 두었다.

〈그림 2-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그림 2-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무처 조직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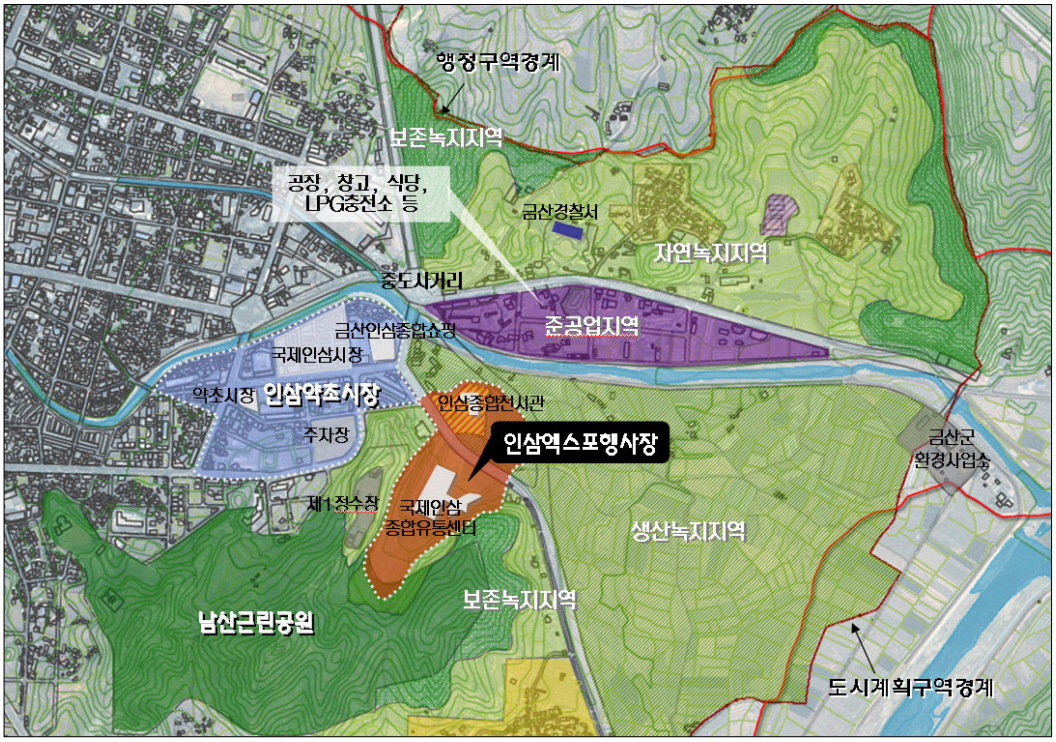
(1) 엑스포장 부지 현황

엑스포장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90번지 일원에 입지하며, 금산읍 시가지에서 동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측으로는 국도37호선과, 국지도6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행사장 부지 총면적은 37,638평으로서 행사장 17,038평, 주차장 20,600평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장 서측에는 인삼약초시장이 연접하여 있어, 행사 개최시 지역상권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8〉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주변현황도



〈표 2-22〉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현황

구 분	세부 내용
입지여건	•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90번지 일원 • 행사부지 : 총면적 37,638평 (건평 4,709평) 행사장 17,038평 주차장 20,600평 (호티리지구-15,600평/참뱅이뜰-5,000평) • 종합유통센터의 적극활용으로 POST EXPO와 연계성이 좋음 • 전체적인 회장의 면적은 좁은 편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면에서 장점 보유
진입도로	• 금산IC에서 들어오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 대전 및 무주방향에서 들어오는 37번 국도 • 금산읍을 거쳐 약초시장을 관통하는 2차선 도로
약초시장 연계성	• 약초시장 인접지역 • 약초시장 연계성 뛰어남
주차장 부지	• 참뱅이뜰과 호티리 지구의 별도 부지 이용 • 주변 학교 운동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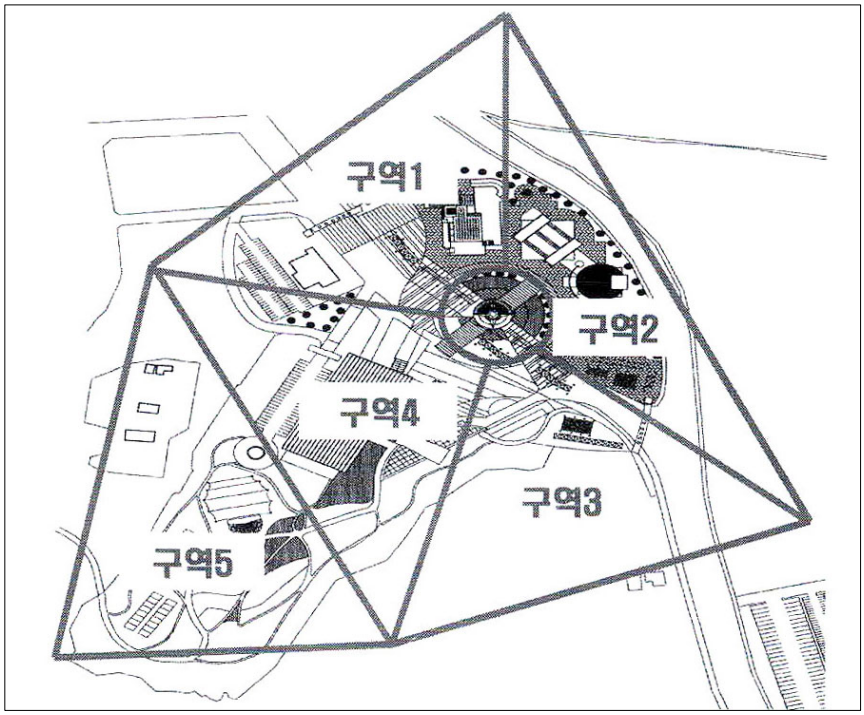
(2) 엑스포장 공간구성 및 시설개요

가. 구성 개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은 전체적으로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구성의 개념은 진입부인 만남의 공간과 인삼에 대한 인식의 공간을 통과하여, 엑스포의 주제를 이해하고 참여교류하는 장과 마지막으로 문화적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 1	엑스포장 진입로로 만남에 대한 기대의 공간이며, 인삼에 대한 1차 인식의 공간
구역 2	교육과 전시공간으로 엑스포 주제를 이해하는 공간
구역 3	체험을 통한 참여공간으로서 전통거리 및 이벤트 공간
구역 4	인삼산업에 대한 정보와 학술의 장으로서 세계와의 교류공간
구역 5	문화적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공간

〈그림 2-9〉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공간구성도



〈표 2-23〉 구역별 세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칭	규 모	비 고
구역1. **인식의 터**	진입광장	Vital-plaza	4,500㎡ × 1개소	광장
	지원시설	기타지원시설	10,990㎡ × 2개소	물품보관소 외
	판매시설	판매소	462㎡ × 1개소	기념품판매소 외
	관리시설	운영사무실	2,276㎡ × 1동	
	인삼전시관	금산인삼전시관	3,359㎡ × 1동	
	소 계		21,587㎡	
구역2. **건강의 성**	주제전시관	Vital-plex	2,645㎡ × 2관	로비 포함
	세계인삼관	세계인삼 홍보관/기업관	990㎡ × 1층	텐트형 임시시설물
	상징조형물	상징조형물/주제광장	10,500㎡ × 1식	조형/분수시설
	소 계		14,135㎡	
구역3. **여흥의 뜰**	전통인삼거리	Ginseng Street	660㎡ × 25부스	초가형 구조(식음시설)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1,980㎡ × 1식	
	소 계		2,640㎡	
구역4. **교류의 장**	인삼 교역관	인삼교역전	990㎡ × 1동	텐트형임시구조물
	컨퍼런스 홀	국제회의장	501㎡ × 1실	
	기업관	CJ관	3,172㎡ × 1동	영구건축물
	소 계		4,663㎡	
구역5. **휴식의 숲**	체험공원	(단체휴게시설)	9,900㎡	공원
	공연장	대공연장/워터스크린	3,300㎡ × 1식	시설
	소 계		13,200㎡	
기타시설	주차장A	대형주차장	51,480㎡	호티리
	주차장B	소형주차장	16,500㎡	참뱅이뜰
	화장실		3개소	
	소 계		67,980㎡	
총 면 적			124,205㎡	

나. 주요 시설

주요시설로서는 생명의 뿌리 인삼관, 인삼산업관, 인삼음식관, 금산인삼종합관, 인삼유통센터, 인삼재배기술관, 건강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관상용 호박터널과 지원시설로서 이벤트 무대, 향토특산품판매점, 간이식당, 화장실, 유니세프 후원사무소, 사회단체급수봉사대, 카드 대기소, 분재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5) 엑스포 행사 추진

엑스포 준비와 구체적 사업추진은 조직위원회 직속기구인 사무처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사무처의 조직구성은 위원장, 사무총장 및 3부 9팀으로 구성되었다.

3부는 총괄부장, 전시유치부장, 운영부장 등이며, 9팀은 총괄부에 총무팀, 홍보팀, 관람객유치팀, 전시유치부에 전시팀, 시설팀, 유치팀, 운영부에 운영팀, 행사팀, 수익사업팀 등이다.

사무처는 부서별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총괄부 총무팀은 추진체계 구축, 행사인력 확보, 지원조직 활성화, 개막식 준비, 업무·회장운용용 물자조달·관리를 하였고, 홍보팀은 홍보체계구축 및 운영, 홍보물 제작,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옥외 및 교통시설물 광고, 온라인홍보, 해외홍보, 도 및 금산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모임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람객 유치팀은 관람객유치 및 숙박대책을 시행하였다.

전시유치부의 전시팀과 시설팀은 엑스포 행사의 주요 주제관인 생명의 뿌리 인삼관, 인삼산업관, 인삼음식관, 인삼재배기술관, 건강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유치팀은 전시참가업체 유치, 국제인삼교역상담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등의 개최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영팀은 조직위에서 직영하는 관람객 서비스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출입관리, 보험관리, 주차장 운영, 소방·방재, 의료구호, 공중위생 등을 추진하고 행사(이벤트) 관련 도우미, 청소, 경비, 셔틀버스, 회장안내서 등을 제작하였다.

제 3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과와 과제

1.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요성과

1) 개최목적 및 사업

(1) 개최 목적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초의 주요목적은 인삼수출 촉진 및 내수기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 확산, 금산약령시장의 국제화실현 기반마련, 고려인삼 거래중심지로서의 금산군 브랜드 이미지 고양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개최된 엑스포는 인삼수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고려인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증진, 금산약령시장의 국제화실현 기반마련 등에 있어서 목적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수출 상담 21,966천불이 이루어졌고, 인삼 약초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된 것은 분명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었다.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된 국내·외 학술대회는 연구자와 참여자에게 고려인삼의 효능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엑스포를 계기로 정비된 사회간접시설과 인삼약초시험장 개소, 인삼종합유통센터 신축, 금산인삼종합관의 현대화 등은 그동안 재래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의 인삼관련인프라를 한단계 높이며, 금산 인삼시장을 국제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 전시참가 및 관람객

엑스포전시에 참가한 국내업체는 식품연구원, 농협, 한국인삼공사 등 51개 업체이며,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 14업체이다. 수치상의 유치목표인 80개 업체 중 65개 업체(약 81%)가 참여함으로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행사기간 관람객은 총 1,900천명으로서 조직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관람객 목표 660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목표 관람객의 288%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방문지별로는 국내 1,877천명(전체의 98%), 외국인 23천명(전체의 2%) 등이 방문하여 주로 국내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공간별로는 주행사장 680천명, 부행사장 1,220천명으로 주행사장 보다는 약초시장과 연계된 부행사장에 관람객이 더 많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수익사업

수익부문은 휘장, 입장권 판매, 임대, 현물협찬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위원회 목표는 약 31억6천6백만원이었다. 목표액 31억은 사업별로는 취장사업으로 6억원, 입장권 판매사업 24억5천만원, 임대사업 8천8백만원, 현물협찬 2천8백만원 등을 목표로 하였다.

개최 후 실적으로서 총 수입은 40억8천1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인 31억6천6백만원에 129%를 달성하여 수익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둔 사업은 현물협찬으로서 당초 예상의 932%를 달성하였으며, 달성율이 낮은 사업은 입장권수입으로서 108%를 달성하였다.

〈표 3-1〉 수익사업 목표 및 실적

구분	합 계 (백만원)	휘 장 사 업				입장권 판매사업	임대 사업	현물협찬사업
		계	후원	공급원	상품화권			
목표	3,166	600	350	150	100	2,450	88	28
실적 (비율)	4,081 (100%)	787 (19.2%)	480	-	307	2,664 (65.3%)	369 (9.1%)	261 (6.4%)
목표대비 실적	129%	131%	137%	-	307%	108%	418%	932%

2) 이벤트·학술행사 및 홍보

(1) 이벤트 및 학술행사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는 인삼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전시연출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홍보와 함께 기존 금산인삼 축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물삼포 조성, 진귀한 인삼・산삼전시, 사이버영상터널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행사장 주변 구절초, 분재원, 이색 식물터널, 다양한 이벤트 등이 개최되었다.

인삼 오감체험 프로그램으로서는 홍삼 팩, 족욕, 인삼캐기, 인삼요리 등이 시행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심포지엄과 학술회의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를 거두었다. 국제인삼심포지엄(9.25~9.28)에서는 기억력 증진, 항암, 노인성치매예방, 항에이즈, 항스트레스 등 인삼효능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약 2,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삼학술회의(10.10~10.11)에서는 인삼산업 활성화, 친환경재배 컨퍼런스 등이 개최되었고 약 820여명이 참석하였다.

(2) 홍보

홍보부문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홍보와 협조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및 금산군, 대행사, 유관기관단체와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주관방송사를 KBS로 선정하여, 집중광고와 시의성 있는 특집보도를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행사기간 중 인삼제품의 판매에 있어 3,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두었으며, 해외바이어 117명 초청과 국제교역상담회 개최를 통하여 총 21,966천불 계약하였다.

특히, 인삼약초시장 개장 이래 최대의 방문객과 매출량(액)을 기록하였으며, 하락하던 인삼가격을 상승으로 전환[4]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인삼산업의 호황과 함께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금산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금산이 인삼산업 중심지로 위상

4) 인삼상품 750g기준가격은 2005년도에 7~8만선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8월에는 2~3만으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 후 현재 시세는 4~5만원으로 가격의 상승전환의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을 확고이 하였으며, 지역 지명도와 인지도 향상으로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행사지원

엑스포 개최가 원활히 추진된 것의 바탕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인파와 각양각색의 관람객 성향에도 불구하고 안내, 회장청소, 질서유지 등에 끝까지 헌신하였으며, 특히 한가위 장기연휴 등에도 불구하고 추석날 당일에도 대부분 참석하여 봉사함으로서 원활한 행사진행이 가능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발휘와 적극적인 참여는 엑스포 성과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교통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며, 가을철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 도로운행 자제, 개인화장실 정비・개발, 청결한 주변환경, 질서정연한 관람을 선도하였다.

4) 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인삼시험장 개장과 함께, 3,184평 규모의 종합유통센터 건립, 1,400평 규모의 금산인삼관을 확보했으며,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수삼센터, 약초시장, 생약시장 등 금산을 대표하는 3개 시장을 현대화하여 금산의 인삼시장을 국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교통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금산IC ~ 인삼시장간 외 7개 노선 확・포장과 함께 19km의 도로를 신규 개설함으로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표 3-2〉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교통 인프라 확충현황

구 간	길이(km)	예산(억원)	비 고
금산IC~중도4가 4차선 확·포장	3.8	422	지방도 68호, 05.10월 준공
행사장 우회 외곽도로 개설	1.4	130	
금천대교~금삼교간 4차선 확·포장	0.2	35	06. 4월 준공
황풍교~창평교간 확·포장	2.2	21	
당골~샛골간 외곽도로 확장	1.9	18	05. 12월 준공
금산~대전간 확·포장	10.5	1,290	엑스포 기간 중 임시개통
합 계	**20.0**	**1,916**	

5) 개최 의의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의의는 첫 번째로 고려인삼 거래중심지로 잠재력을 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엑스포 개최로 종합유통센터건립, 인삼시장현대화 등 선진유통 시설의 도입과 대전, 충남·북, 전북 등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은 기존 금산이 보유하고 있는 인삼 중심지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타지역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민, 관련업계 모두 높은 자부심과 미래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전환 계기가 되었다. 특히, 행사기간에 개최된 심포지엄과 학술회를 통하여 국내 인삼시장으로는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금산을 자연환경과 인삼약초가 어우러지는 웰빙형 건강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산만의 수려한 경관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휴양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성과로서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홍보효과로 인하여 고려인삼의 가치증대와 인삼수출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행사기간 중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3,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두었으며, 해외바이어 117명 초청과 국제교역상담회 개최를 통하여 총 21,966천불 계약하였다.

2. 과제

1) 행사진행 상의 과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기존의 인삼축제와는 다르게 보다 차원 높은 수준의 마케팅과 홍보를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금산 인삼 축제가 25년간 지속되어오면서 상당수의 방문객 들은 무료입장에 익숙해져, 산업박람회를 표방하면서 고가의 유료입장료 부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추후 개최될 시에는 부담 없이 입장가능토록 적정한 요금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관람계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계층에 치우치고, 미래의 잠재관람계층인 청소년은 적었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고객이며 소비계층인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편성과 함께 기억력 증진 등에 대한 기능성, 효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개념 확대와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국내외 업체들의 참여확대가 필요하였다. 기존 축제는 금산약초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반면, 이번 엑스포는 새로운 행사장 마련과 함께 국내외 관련업체의 참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상당수 타 인삼농협에서는 금산인삼이라 명명된 엑스포 참가에 상당한 반감을 가졌으며, 이것은 국내에 산재한 12개 인삼농협의 저조한 참여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인삼 재배와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전시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사장 규모, 협조 및 지원시설 등이 미흡하였다. 금산의 지역여건상 회장면적이 협소해서 충분한 편익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엑스포의 위상에 걸 맞는 고급숙박시설, 식음시설 등의 확충과 신용카드사용 등의 어려움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2) 중장기적 과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인삼수출 촉진 및 내수기반 확대, 고려인삼에 대한 인지도 확산, 금산약령시장의 국제화, 고려인삼의 중심지로서의 금산군 이미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다. 금번 엑스포를 계기로 목표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부분에서는 상당한 목표달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엑스포가 초기에는 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삼산업 육성 종합추진은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엑스포 행사계획 단계부터 각계를 아우르는 전시와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행사 규모에 걸 맞는 입지선정과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제 4 장 국내외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사례 분석[5)]

1. 분석의 항목 설정

대부분의 엑스포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개발프로젝트임을 감안할 때 계획 초기부터 사후 활용방안까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최된 대부분의 엑스포는 1회성 행사 위주로 기획되면서 행사 종료 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내 대규모 행사장으로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과 주변지역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① 엑스포 행사시설(전시관 등), 관리시설 등 영구시설의 비율, 사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 시설의 사후 분양 여부 등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

②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의 조성 여부, 행사 개최 전 부지의 용도, 사후 토지이용의 복합성 여부, 행사장의 면적 등 부지의 사후 활용 측면

③ 엑스포 행사장과 도심과의 거리, 행사장 주변의 토지이용 등 행사장의 입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행사장의 사후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사례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

5) 본 내용은 박홍철의 "EXPO 행사장의 사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02)", 석사학위 논문 중 제4장 엑스포 행사장 사후 이용분석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시설의 사후 활용을 조사하기 위해 행사장 시설의 용도분류로서 선행연구검토 결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엑스포에 이용되었던 시설들에 행사가 끝난 후 재사용 비율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행사장 시설물의 용도를 <표 4-1>과 같이 전시, 공연, 상업, 위락, 서비스, 주거, 관리, 주차, 공원녹지 및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4-1〉 시설의 사후 활용 용도분류

시설구분	세부적 시설용도
전시시설	- 한 개동 또는 연결된 건축물 단위로 구성된 전시공간 - 국가·국제기구, 기업, 지자체 등 참여형태에 따라 독립 Pavilion과 공동 Pavilion으로 구성
공연시설	- 실·내외 공연장, 극장, 이벤트 시설, 주제 광장 등
상업시설	-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카페테리아 등의 식음 시설 - 기념품점, 특산물 판매장 등의 판매시설 등
위락시설	-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유희시설, 놀이공원 등
서비스시설	- 종합안내소, 응급진료소, 미아보호소, 장애자센터, 우체국, 은행, 통역센터, 휴게시설 등
주거시설	- 엑스포 종사자 및 관람객을 위한 종사원 주거단지 - 사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되는 주거단지 등
관리지원시설	- 관리사무동, 국제회의장, 행사운영센터, 직원식당, 직원편의시설, 전산센터, 프레스센터, 방송국, 경비본부, 소방센터, 경찰파출소 등
주차시설	- 관람객 주차장, 종사자 주차장 등
공원녹지	- 공원, 소규모 녹지광장 등
기타시설	- 전망대, 기념 타워 등 기타시설

엑스포 행사 시설은 전시시설, 공연시설, 상업시설, 관람객 서비스시설, 관리지원시설, 위락시설 및 주차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전시시설은 행사장의 중심시설로 전시기능을 담당하며 외장은 주제 부각을 위해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파빌리온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공연시설에는 대규모 공연을 수용하는 대공연장 및 기획공연을 수용하는 중규모의 공연장과 일반적으로 참여 이벤트 행사를 수용하는 소공연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 광장이나 보행로로 사용된다. 상업시설에는 음식점, 식음시설, 기념품 등의 판매시설이 있으며, 관람객 서비스시설은 종합안내소, 응급진료소, 미아보호소,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또 행사운영본부, 매표소 및 지원시설, 경비 등을 수용하는 관리사무실, 프레스센터 등은 행사장 운영을 위한 관리지원시설로 나눌 수 있다. 위락시설은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유희시설이고 주차시설은 주차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내소, 기념품 판매소,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10㎡ 이하의 키오스크형 임시구조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점유비율이 높은 용도를 해당 시설의 대표 용도로 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행사 후 시설들의 존치 여부와 용도를 조사하여 재사용 시설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그 이하일 경우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분류하며, 용도별 점유율 변화를 통해 행사장의 사후 이용 방향을 분석한다.

2) 부지의 사후 활용 측면

토지이용 관점에서 엑스포 부지의 사후 활용은 크게 시민공원, 연구단지, 주거단지, 테마파크 등 한 가지 주 용도로 활용하는 단일용도형과 주거・업무단지, 연구・위락단지, 상업・공원, 상업・위락・연구단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복합용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행사장의 사후 용도는 행사 초기 부지 선정방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행사장의 선정은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설 박람회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행사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행사가 없을 때에 활용방안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시설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수익성 추구를 주안점으로 할 것인가와 공공성을 주안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진다.

기존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넓은 부지를 이용한다. 즉, 점용허가를 통해 시설을 가설하고 다시 행사가 끝난 후에는 행사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행사장의 입지적 특성

부지의 활용 측면과 시설의 활용 측면 외에 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입지적 특성, 즉 도시 중심부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거리, 행사장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의 경우, 개최 도시 외에 서울도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보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2. 국내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1) '93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계획 초기 행사장에 대해 주제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를 임시건물로 건설하여 행사 후 철거하고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 반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대전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영구엑스포의 성격을 지닌 유희시설과 과학시설의 혼합형태를 가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초기 계획안과는 달리 엑스포가 끝난 현재 행사장은 크게 주제광장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상설 전시구역과 동쪽에 위치한 국제 전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행사 당시 기업관이 주로 위치했던 상설 전시구역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전시하는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후 행사장 활용의 주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엑스포 과학공원은 개장 2년 후부터 일평균 관람객 수가 14,357명(1994년)에서 5,141명(1996년)으로 65%이상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학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및 지속적인 재투자 없이 기존의 전시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설전시구역과는 반대로 임시건물만으로 구성되었던 국제전시구역은 행사 후 13개 전시관 모두 철거되어 현재는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조경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회의 시설 및 연수시설, 중소기업육성센터, 정보문화교류센터 등을 갖춘 '비즈니스 파크'성격의 첨단단지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행사장에 대한 소유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엑스포 행사 후 부지활용 측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면적을 보면, 기념재단이 입주해 있는 관리시설용지와 주차장을 포함하여 엑스포 과학공원이 전체의 51.5%인 140,705평, 위락시설지역이 5.4%인 14,670평, 나대지 및 기타 용도지역으로 43.1%인 117,625평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지는 과학을 테마로 한 전시중심시설에 위락시설이 일부 첨가된 과학공원용지로 단일용도형 토지이용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93 대전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과학공원지역	140,705	51.5
위락시설지역	14,670	5.4
나대지 및 기타	117,625	43.1

시설 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사용된 건물은 총 69개동으로 이들 시설의 주용도는 전시시설 38개동, 위락시설 13개동, 야외극장을 포함한 공연시설 3개동, 관리소 등의 관리지원시설 3개동 등 이었으며, 특히 전시시설과 위락시설의 비율이 국내의 타 행사장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시시설의 경우 국제전시구역의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시관이 철거되면서 그 수가 50% 가까이 줄어든 19개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평균 입장객의 수가 줄어들면서 관람객의 편의를 담당했던 서비스시설, 주차시설도 적정 수요에 맞게 각각 3개동과 1개소씩 줄어들었다. 반면 용도변경이나 신축 등으로 증가된 시설은 없었으며, 행사 당시 사용되었던 시설 중 36%에 해당하는 25개동이 현재는 공사중이거나 나대지로 남아 있어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93 대전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 비율이 64%로 다소 높게 나타나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부지의 활용은 위락시설이 첨가된 과학공원인 단일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2)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계획 초기 도시계획시설인 호수공원에 대한 공원점용허가를 통해 행사부지를 마련해야 했기에 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을 행사 전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축물은 임시구조물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불필요한 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외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 확보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존 계획에서 행사 종료

후 행사장 활용에 대한 계획은 주 전시관(다솜관, 자연관, 첨단관)을 실내 스포츠관, 상설 전시관 등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박람회 본관은 박람회 기념관이나 근린주민을 위한 시민회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997년 행사 종료 후 향후 박람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 제2회 행사가 개최되고 정례화 되면서 영구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초기 수립했던 사후계획의 상당부분 실현되었다. 또한 고양 세계꽃박람회의 경우 행사장 주변이 중심상업 및 업무지구로 행사 종료 후에도 공원 이용 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행사 후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다른 행사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3〉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도시 근린 공원	193,000	62.3
주차장 및 기타	117,000	37.7

고양 세계 꽃 박람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내 비공인 엑스포가 정기적인 행사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박람회장이라는 넓은 부지를 행사 때마다 임대해서 사용하기에는 재정과 용지확보라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사례처럼 근린공원 등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공원의 공간구조가 행사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 박람회장의 용도별 토지이용을 보면, 행사 전 호수공원의 이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처럼 가족단위 나들이나 각급 학교의 야외 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음악회, 전시회, 마당극과 꽃 전시회 등의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문화행사공간으로의 성격이 증가하였다. 행사장의 용도별 점유율은 도시공원 용도로 전체 부지 중 62.3%인 193,000평, 주차장 및 기타용도로 37.7%인 117,000평으로 나타났다. 즉, 고양 세계 꽃 박람회 부지는 공연장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으로 단일용도형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사용된 시설물은 제1회 총27개동, 제2회 총24개동으로 다

른 엑스포 시설의 약 60%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행사부지가 도시근린공원이라는 공간적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꽃을 주제로 이루어진 박람회였다는 행사의 성격상 실외 전시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난 후 점유율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였던 시설로는 전시시설, 상업시설과 공연시설이 있었는데 특히 전시시설의 경우 1, 2회 각각 약 91%, 86%씩 줄어들어 현재는 1개동만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용도변경이나 신축 등으로 증가된 시설은 없었으며 당시 사용되었던 시설들 중 약 67%가 철거 후 기존의 공원 녹지로 복원되어 활용되고 있다.

즉, '97 및 2000 고양 세계 꽃 박람회장은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영구시설의 비율이 33%로 낮게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지역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도시근린공원인 단일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3)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는 계획 당시 행사장 부지를 임차하여 가설 건축물로 건립함에 따라 냉・난방문제, 내・외부 벽체 균열문제 등 시설물 자체에 직접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행사 때마다 영업시설 등을 임시 구조물로 설치했던 이유로 시설비 부담이 늘어났고, 보수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비용증가가 발생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행사 후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존 엑스포 행사장 부지와 시설의 일부를 그대로 수용한 후 마스터플랜을 재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행사장을 상설 박람회장으로 조성하였다. 상설 박람회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막구조였던 임시 시설들이 철골조의 영구시설로 교체되었다. 조직위원회는 막구조 서비스센터를 영구시설로 건립 한 후 행사장 전면에 배치하여 행사장 관리와 관람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당, 매점 등 일부 상업시설을 영구시설로 설치하였는데, 이는 사후 행사장 유지관리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고 엑스포 개최기간이 아닐 때 행사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국내 몇몇 비공인 엑스포가 정기 행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장과 같은 상설 박람회장 건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상설 박람회장의 경우 행사가 없는 시기에 수익성 시설로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영리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

기 쉽다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행사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소규모 지역축제를 유치하거나 대관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수익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 행사 후 부지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용도별 토지이용을 보면, 행사장 관리 시설과 주요 전시관들로 구성된 상설 전시지역이 49.3%인 77,509평, 행사장 북측의 조각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 지역이 45.5%인 71,435평으로 나타났다. 즉, 부지는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면서 많은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상설 박람회장으로 단일용도형 토지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4-4〉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상설 전시지역	77,509	49.3
공원・녹지지역	71,435	45.5
주차장 및 기타	8,121	5.2

시설의 활용을 보면,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 당시 사용된 시설은 제1회 24개동, 제2회 32개동으로 다른 엑스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시설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설의 규모 면에서 다른 엑스포 동종 시설의 평균 규모를 상회하는 대규모의 시설이 주를 이루어 행사를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였다.

다른 행사장의 경우 전시시설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건물로 분할된 소규모 전시관들이 모여 구성된 반면,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장은 하나의 대규모 건물 내에 비슷한 성격을 갖는 여러 개의 전시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관리지원시설의 경우 시설 점유율이 1, 2회 엑스포 평균 14.6%로 타 행사장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상설 박람회장을 추구하면서 부지 내에 연중 행사장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은 다른 행사장과 달리 행사 후 점유율 면에서 크게 변화를 보인 시설이 나타나지 않았다. 행사 당시 사용되었던 시설들 중 31.2%가 임시시설물로 나타났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식당으로 사용되었던 상업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의 비율이 68.8%로 타 행사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적 엑스포가 치러지는 상설 박람회장인 단일용도형 토지이용로 이용되고 있다.

4)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99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행사장은 속초시가 '93년부터 청초호 유원지 개발목적으로 매립 조성한 124,000평의 부지에 조성되었다.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계속 설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엑스포 시설인 전시관 등 건축시설과 토목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속초시 주관으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90년 기본계획을 수립, '9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청초호안을 매립하여 124,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호수변 유원지 개발과 관광위락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96년 청초호반이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청초호 유원지 부지는 엑스포 이전에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엑스포 이후에는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유원지로 조성·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종료 3년이 지난 현재 행사장 이용은 유원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던 기존의 계획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5〉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기념 공원 지역	7,944	6.4
주 차 장	27,005	21.8
나대지 및 기타	89,051	71.8

먼저 용도별 토지이용을 보면, 기존의 전시시설 용지로 활용되었던 주제관과 메인 이벤트광장 부지의 일부인 약 8,000여평 만이 엑스포 행사를 기념하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전체 부지의 71.8%에 해당하는 89,051평은 대부분의 행사 시설물 철거 후 현재 나대지로 남아 연 5~6회 정도 시·도 주관 행사가 치러지는 임시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강원 국제관광엑스포부지는 1999년 국제 관광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으로 단일용도형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34개동이었던 시설물이 행사 종료 후에는 13개동으로 62%가 감소하였다.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의 경우 시설물의 수가 비교적 작았으며, 대부분 임시 시설물로 나타났다. 이는 행사장 대부분이 지반이 약한 인공 매립지라는 점, 해풍을 직접 받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 주차공간이 철새도래지로 적극적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 제약조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용되었던 주요 건물 중 현재는 주제관과 엑스포 타워만 남아있으며, 주제관으로 사용되었던 전시관은 기념관과 영상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관광정보센터가 입주해 있는 기념관은 엑스포 개최 관련자료와 지역특산품을 전시하며 지역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정보센터로 영상관의 경우 3차원 입체 영화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주제관과 엑스포 타워가 위치한 강원도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유지로 행사가 끝난 후 개인에게 분양중이나, 높은 지가로 인해 현재는 2필지만 분양되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행사가 끝난 후 전시시설과 서비스시설의 점유율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신축 등으로 증가된 시설은 없었다.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의 비율이 38%로 낮게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지역 행사였던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인 단일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5)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행사장은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되어있다. 하남시에서는 행사 당시 전시시설용지로 활용되었던 공간에 대해 공원화 계획이 있었으나, 행사가 끝난 현재 전시시설용지 대부분은 주차장과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행사장을 찾는 이용객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100~150여명 정도로 다른 행사장에 비해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는 행사장 내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과 자가용 이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행사장의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조정경기장의 일부분을 경정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완공이 된 상태이다. 행사 종료 후 주1, 2회 정도의 운동장 대여료 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적자 운영되었던 부지에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정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가 갖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정장 개장으로 인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엑스포 행사 당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접근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경정 및 조정 경기장	84,848	89.3
주차장 및 기타	10,152	10.7

사후 박람회장의 용도별 토지이용은 행사 전 조정경기장 당시의 이용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행사장 부지는 조정・카누・경정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수 주위를 따라 자전거 하이킹코스와 녹지공간 속에 21종의 근린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과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사장의 용도별 점유율은 경정 및 조정경기장 용도로 전체 부지 중 89.3%인 84,848평, 주차장 및 기타 용도로 10.7%인 10,152평으로 나타났다. 즉, 하남 국제환경엑스포 부지는 주위에 축구장, 배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포함하면서 경정 및 조정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으로 단일용도형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당시 사용된 시설물은 총 26개동으로 '98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의 경우와 같이 다소 적은 수의 시설이 활용되었으나, 규모면에서는 대부분 대규모의 구조물

이었다. 당 행사장은 타 행사장과 달리 전시시설과 공연시설이 모두 텐트형 임시구조물로 설치되어 행사 후 100% 철거되었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대부분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기타시설의 점유율이 다른 행사장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정, 경륜훈련원, 경정관람석 등의 기존 조정·경정 관련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사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들 중 54%가 임시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나 행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조정경기장 관련 시설물을 제외했을 경우 임시시설의 비율이 81%로 전형적인 임시시설 중심형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의 비율이 46%로 낮게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경정 및 조정경기장의 단일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6)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이천 주 행사장)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 행사 후 격년제 국제행사인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행사가 없을 때에는 도자기 아웃렛이나 문화축제 등 1년 단위의 연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1단계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로 도자기 문화와 기존의 온천 등을 연계한 문화와 관광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여 기존의 핵심적 관광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계획을 세운 단계였다.

2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경기도 도예산업 관광벨트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의 관광이미지에 위락과 레저관광 이미지를 추가하여 호텔, 유통시설, 테마파크 등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민관합동개발방식에 의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3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상업·오락·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위락 단지로 개발하여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관련된 활동을 도예문화관광단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세계도자기 리조트 복합단지로 육성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행사 계획 당시부터 행사장에 대한 장기간의 사후 활용계획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엑스포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후 활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현행 법체계 안에서 법개정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들이 많다는 점, 부지의 소유주체가 경기도와 이천시로 이분되어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조직위원회의 초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7〉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도자기 공원	74,897	57.6
주차장 및 기타	55,121	42.4

엑스포 행사 후 부지 활용 측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면적을 보면, 세계 도자기 엑스포 재단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관리시설용지와 상설 도자기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전시시설용지를 포함하여 도자기공원이 부지 전체의 57.6%인 74,897평, 주차장 및 기타시설지역으로 42.4%인 55,121평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 도자기 엑스포 부지는 기존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에 전시의 기능을 추가하여 도자기라는 테마를 가진 단일용도형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사용된 건물은 총 29개동으로 이들 시설의 주 용도는 전시시설 13개동, 공연시설 4개동, 도자기 전용판매관을 포함한 상업시설 5개동 등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엑스포 행사장과는 달리 위락시설은 입지하고 있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현재, 시설요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시시설의 경우 77%가 철거되어 영구시설 3개동만이 상설전시관과 도예공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평균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상업시설과 관리지원시설 등이 각각 3개동과 2개동씩 줄어들었다. 신축 등으로 인해 증가된 시설은 없었으며 행사 당시 사용되었던 시설 중 57%에 해당하는 16개동이 현재는 공사 중이거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 비율이 43%로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의 활용은 근린공원의 성격을 갖는 도자기전시공원형태인 단일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3. 국외 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분석

1) SPAIN SEVILLA EXPO '92

스페인 SEVILLA EXPO '92 행사장의 경우는 엑스포 계획 초기부터 부지의 특성을 파악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사후 활용계획이 수립되었다.

카르투하 '93(CARTUJA '93)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던 행사장 사후 활용에 대한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51%, 안달루시아 정부 44%, 세비야시 5%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졌다. 스페인 중부나 북부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세비야시에 추진되었던 카르투하 '93 프로젝트는 관광과 농업중심이었던 지역의 주력 산업을 연구 및 기술개발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표 4-8〉 SPAIN SEVILLA EXPO '92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과학 연구 단지	260,000	40.0
도시공원 지역	220,000	33.8
상업 및 업무 지구	170,000	26.2

카르투하 '93(CARTUJA '93)계획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첫째는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으로서 여기에는 정부 및 기업체의 주요 연구소를 유치하여 정보·통신·전자·생명과학 연구의 성격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미국광장이 있던 공간은 75,000㎡의 면적에 세비야대학의 경제·정보통신·우주항공 등의 학과가 입지하면서 현재 연구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는 도시공원의 조성으로서, 엑스포의 영구관으로 건축되었던 항해관, 발견관, 자연관, 스페인관 등 주요 주제관을 중심으로 약 130,000평의 엑스포 기념공원지역이 조성되었으며 행사장 내부 사원이 있던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는 상업 및 업무 공간의 조성으로, 이 지역에는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세비야시를 미래의 정보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Torre Triana를 건설하였으며, 세비야 시청에서는 엑스포 행사장의 Caracolas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시설을 입지시켰다.

현재 World Trade Center와 Centro de Prense 두 건물은 상업 및 업무 공간의 중심시설로서 기업체의 사무공간, 업무공간과 상업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부지의 활용은 과학연구단지가 전체 부지의 40%인 260,000평, 도시공원이 33.8%인 220,000평, 상업 및 업무지구로 26.2%인 170,000평이 이용되어 복합용도형 토지 이용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사용된 건물은 총 73개동으로 이들의 주 용도는 전시시설이 31개동, 공연시설이 5개동, 상업시설이 5개동 등이었으며, 특히 전시시설과 공원・녹지의 비율이 타 행사장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점유율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였던 시설은 전체 시설물 중 42%를 차지했던 전시시설로 시설의 87%가 줄어 현재 4개동만이 전시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전시관이었던 27개동은 모두 철거 후 재건축 등의 과정을 통해 소규모 대학, 호텔, 연구소, 상업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SPAIN SEVILLA EXPO '92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 시설의 비율이 45.8%로 낮게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연구단지, 도시공원, 상업・업무의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2) ITALY GENOA EXPO '92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는 도시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행사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엑스포 계획 초기부터 대규모 사후 활용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던 세비야 엑스포나 리스본 엑스포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행사장의 용도별 토지이용을 보면, 행사장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기존 전시시설로 사용되었던 곳 중 이탈리아관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를 중심으로 약 4,329평(전체 부지의 28.8%)이 엑스포 기념 전시시설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행사 당시 행사장 남서쪽의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었던 8,758평의 부지(전체 부지의 58.4%)에는

물류창고 등이 위치하면서 항만시설 및 기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직위 본부와 소규모 전시관이 있던 행사장 남동쪽 부지(전체 부지의 12.8%)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표 4-9〉 ITALY GENOA EXPO '92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전시 시설 지역	4,329	28.8
상업 시설 지역	1,913	12.8
항만 시설 및 기타	8,758	58.4

시설의 활용을 보면, 행사 당시 31개동 이었던 시설물이 행사종료 후에는 27개동으로 임시 상업시설 등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물 4개동이 감소하는데 그쳐 87%라는 높은 영구시설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행사 종료 후 시설이용 변화 특징은 전시시설의 비율이 83% 줄어들고 상업시설과 기타시설의 비율이 각각 70%와 75%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행사개최가 낙후되었던 항만시설의 정비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지역 내 경제활동을 유발시켰고, 결국 항만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행사장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대규모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은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남서쪽에 위치하며 소규모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은 모두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당시 주제관으로 사용되었던 이탈리아관은 행사장 부지 중앙에 위치하여 현재는 제노아 엑스포를 기념하는 아쿠아리움(Aquarium)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1993년 개장 이후 매년 약 1,400,000명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등 엑스포 종료 후에도 매우 활성화 되어있어 대규모 행사장 조성 후 이용률이 저조한 국내 여러 행사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른 엑스포 행사장이 일반적으로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장의 일부에 사후 기념 공원을 조성하였던 데 반해, 제노아 엑스포는 바다와 배를 주제로 하였던 행사의 특성과 항구라는 지역적 성격을 반영하여 당시 중심 전시시설로 사용되었던 시설에 기념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기존 엑스포 행사장과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며, ITALY GENOA EXPO '92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비율이 87%로 나타나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부지의 활용은 전시・상업・항만시설지역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3) PORTUGAL LISBON EXPO '98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는 다른 엑스포와는 달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회사에 의해 사후 활용계획이 수립・운영되면서 공익보다는 투자액 회수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다.

'EXPO URBE'라는 명칭의 사후 활용계획은 행사가 끝난 리스본 엑스포 행사장을 '국제 상업지구 및 문화・레저 중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되었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표 4-10〉 PORTUGAL LISBON EXPO '98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주거 단지	116,735	63.1
업무 지구	44,770	24.2
상업 지구	15,170	8.2
위락 지구	8,325	4.5

행사장 중앙에 영구시설로 건설된 4개의 주제관이 위치하고 있던 부지는 문화・위락공원의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수족관으로 사용되었던 해양관은 사후에 용도변경 없이 계속 운영되었으며, 미래관은 민간기업들의 소규모 이벤트를 위한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시관 중 가장 큰 규모였던 유토피아관은 다용도 실내 돔 경기장과 실내 공연장의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해양 지식관은 과학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임시건물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남부 국제전시구역(The south international area)은 전시관 철거 후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25,000명이 거주하는 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영구시설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북부 국제전시구역(The north international area)은 국제전시장으로, EXPO main enterance는 대형 쇼핑센터와 행사장 관리소로 활용되고 있다.

부지의 활용은 주거단지(EXPO Village)가 전체 부지의 63.1%인 116,735평, 기업본사 및 정부청사 등이 입주해 있는 업무지구가 24.2%인 44,770평, 상업지구가 8.2%인 15,170평, 위락지구로 4.5%인 8,325평이 이용되어 복합용도형 토지이용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의 활용 측면을 보면, 행사 당시 사용된 건물은 총 71개동으로 전시시설이 28개동, 서비스시설이 7개동, 상업시설이 7개동 등이었으며, 특히 관리시설은 2개동으로 다른 행사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행사가 끝난 후 전시시설의 일부가 철거된 뒤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전체 시설의 수도 89개동으로 18개동이 증가하였다. 전시시설의 경우 71% 감소, 주거시설의 경우 100%의 증가를 보이며 점유율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시설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PORTUGAL LISBON EXPO '98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의 비율이 81.7%로 높게 나타나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부지활용은 주거・업무・상업・위락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4) GERMANY HANNOVER EXPO 2000

독일은 연평균 129회 국제적 규모의 일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24곳(2001년 현재)의 상설 박람회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노버 엑스포 행사장은 24곳의 상설 박람회장 중 한곳에 확장 조성되었기 때문에 행사 후에도 기존 상설 박람회장 공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노버 엑스포 행사가 끝난 현재 행사장은 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30m 도로를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 부지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측 행사장은 하노버 엑스포 기념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부지로 사후 상설 박람회장(전체 부지의 7.4%)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지의 약 48%만이 전시 프로그램을 가진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지는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분양을 위해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로 국내 대전 엑스포 행사장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한편 행사장이 확장・조성되면서 임시시설이 주로 설치되었던 서측 행사장은 기존 시설물

철거 후 부지 중앙에 대학시설을 포함 한 연구 및 업무 지역(전체부지의 7.2%)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대규모 주차장이 동쪽으로는 엑스포 기념공원(전체부지의 34.7%)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4-11〉 GERMANY HANNOVER EXPO 2000 종료 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면적(평)	비율(%)
상설 박람회 단지	35,691	7.4
기념 공원 지역	168,148	34.7
연구 및 업무 지역	34,691	7.2
나대지 및 기타	245,470	50.7

한편, 엑스포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로 6개월 간의 전시가 끝난 후 시설물을 해체할 때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그러한 이유로 하노버 엑스포의 주요 주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여 서측 행사장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시관은 가능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게 하였고, 건물 해체 후 건축 자재를 재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계획되면서 다른 행사장에 비해 임시 전시 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는 전시시설의 감소(37개동에서 7개동으로 81%감소) 이외에 행사 전 후 점유율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였던 시설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GERMANY HANNOVER EXPO 2000 행사장의 경우 시설의 활용은 영구시설비율이 45.5%로 나타나 임시시설 중심형으로, 부지의 활용은 상설 박람회 단지・기념 공원・연구 및 업무 시설지역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용도형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4. 분석 종합

1) 시설의 활용 측면

엑스포 행사장의 영구시설의 비율을 보면, 국내 행사장의 경우 '93 대전 엑스포(64.0%)와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68.8%)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행사장의 경우는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87.0%), 포루투갈 리스본 엑스포(81.7%)가 영구시설 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위의 엑스포 행사장은 모두 영구시설 중심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시설의 성격 면에서는 국내 엑스포 행사장과 해외 엑스포 행사장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 영구시설로 건립된 국내 행사장 전시관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워 사후에도 행사 당시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상설 박람회장, 과학 전시관 등의 전시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 해외 행사장은 계획당시부터 사후 건물의 용도를 미리 결정한 다음 건물을 설계하고 배치하면서 사후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용이하여 현재는 대부분 업무, 주거, 상업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높았다.

'93 대전 엑스포,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와 같은 경우 영구시설로 건립된 기존 시설의 활용이 가능하고, 추가 건축미용이 적게 소요되며, 엑스포 개최로 인해 행사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한 가지 성격을 특화시킨 테마공간으로의 조성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후 행사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 단위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행사 계획 초기 단계부터 사후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행사장 조성시 사후 운영까지를 고려한 시설물 건립과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 종료 후 시설에 대한 임대 및 분양 여부를 살펴보면, 사후 운영・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해외 엑스포 행사장과 이용률이 저조한 국내 엑스포 행사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엑스포 행사장은 대부분 사후 시설물에 대해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 행사장의 경우는 행사 직후 엑스포 기념물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또는 그 보다 낮게 임대 및 분양하여 사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후 행사장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의 성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행사장의 경우 대부분 행사 후 부지 내 엑스포 기념재단이 상주하며 행사장을 직접 운

영・관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지와 시설 또한 상업적 성격보다는 공익차원의 성격을 띠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와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등 해외 행사장의 경우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에 의해 운영・관리되면서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의 시설을 공급하여 분양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사후 행사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구시설 중심의 엑스포의 경우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전용시설보다는 행사계획부터 미리 건물 용도에 대한 주변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후 건물 용도를 결정한 후 변경이 용이한 구조로 건물 설계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행사장 시설물에 대해서 엑스포 기념재단은 엑스포 기념관, 기념타워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및 분양한 후 민간회사에 운영과 관리를 맡겨 지속적인 재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부지의 활용 측면

사후 부지에 대한 활용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97 및 2000 고양 꽃 박람회와 스페인 세비야 엑스포,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 독일 하노버 엑스포의 경우 행사장의 평균 면적은 약 407,250평으로 위의 사례를 제외한 엑스포 평균인 155,800평 보다 두 배 이상의 넓은 면적에 행사장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엑스포의 경우 기존 도시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항만시설지역, 폐기물 매립지, 공업지역 등 대부분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 지역을 재개발・재정비하기 위한 매개체로 엑스포가 이용되었다.

반면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 '93 대전 엑스포, '98 및 2000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등 국내 엑스포 행사장은 대부분 행사 개최를 위해 호수 매립 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신규 조성하거나 시・도 소유의 근린공원・체육시설 등에 대한 점용허가를 통해 행사장을 임시로 조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 행사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계획・운영되는 관계로 행사를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사 종료 후 부지가 갖고 있던 기존 성격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

사장의 건물이 임시시설 중심으로 설치되는 등 소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재개발의 효과는 전자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 후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1992년 스페인 세비야 엑스포, 1992년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등 해외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사후 토지이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주거・상업, 업무・상업, 위락・주거・기념공원 등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행사장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기념공원, 상설 전시장 등 한가지 성격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행사 개최 전 부지의 용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 확보는 초기 행사장 조성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부지 조성보다는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도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부지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행사장의 토지이용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용도의 성격을 갖는 복합용도형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지특성 및 기타

엑스포 행사장이 입지했던 지역의 주변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사후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1997년 및 2000년 고양 세계 꽃 박람회, 1992년 스페인 세비야 엑스포, 1992년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 등의 행사장 주변은 주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행사개최의 연속성 여부를 살펴보면 1997년 및 2000년 고양 세계 꽃 박람회, 1998년 및 2000년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등의 엑스포가 일정 간격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대부분 행사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해외 엑스포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면서 사후 부지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행사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엑스포 행사장과 도심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사후 이용률이 높은 행사장의 경우 1.7㎞부터

2.5㎞ 내외로 도심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6㎞ 내외로 도시의 외곽에 주로 입지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국내 엑스포의 경우 소규모로 단기간 동안만 행사가 치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사장으로의 대중교통이 엑스포 기간에만 임시 확충되면서 사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나타내는데, 행사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총 12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영구시설의 비율과 부지활용의 복합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성격에 따라 영구시설 중심의 복합용도형, 영구시설 중심의 단일용도형, 임시시설 중심의 단일용도형, 임시시설 중심의 복합용도형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구시설 중심의 복합용도형에는 ITALY GENOA EXPO '92와 PORTUGAL LISBON EXPO '98가 해당하였고, 영구시설 중심의 단일용도형에는 '93 대전 엑스포와 2000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해당하였다. 한편 임시시설 중심의 단일용도형으로는 '97 및 2000 고양 꽃 박람회,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99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 '99 하남 국제 환경 엑스포, 2000 고양 꽃 박람회,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해당하였고, 임시시설 중심의 복합용도형으로는 SPAIN SEVILLA EXPO '92와 GERMANY HANNOVER EXPO 2000이 해당하였다.

제 5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사후활용방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인삼이라는 특정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전문산업엑스포로서 엑스포 행사장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방안은 시설물의 입지적, 기능적인 고려와 함께 금산군의 인삼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방안 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을 국제적 인삼관광지라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한다. 둘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을 지역관광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을 통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과 금산인삼축제 장소인 인삼시장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한다. 넷째,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의 금산인삼웰빙특구의 추진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1) 국제적 인삼관광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치른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 상징물을 조성하여 활용한다. 향후 금산인삼축제의 개최장소의 일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인삼종합전시관을 활용하여 국제적 인삼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한다.

2) 지역관광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을 통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을 연중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찾으며, 금산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육성한다. 또한, 행사장을 금산관광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3) 금산인삼축제 장소인 인삼시장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제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과 금산인삼축제 행사장의 기능을 차별화하되 장소적인 인접성을 활용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인삼웰빙특구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전략 마련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인삼웰빙특구 등의 핵심사업과 프로그램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에 연계하여 유치하고 이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금산인삼웰빙특구의 입지 시설과 프로그램은 기존의 금산인삼축제의 성격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2.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사후 활용 전략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방안의 방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국제인삼유통센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인삼종합전시관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넷째,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금산인삼웰빙특구 추진과 관련한 활용방안이며 여섯째, 국제인삼교류의 거점지 기능을 강화한 활용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활용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은 두가지 활용방안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금산인삼테마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금산인삼테마공원을 소규모로 조성하고 기존 시설인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인삼종합전시관, 그리고 약초시장을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2) 국제인삼유통센터 활용

금산의 국제인삼유통센터는 인삼제품 연구개발과 수출의 핵심적,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인삼물류센터의 중심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둘째, 인삼연구소를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협력하여 조성하여 인삼의 연구와 인삼의 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삼종합전시관 활용

금산 인삼종합전시관은 독립적인 기능보다는 행사장과 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웰빙특구와 연계하여 활용할 때 그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삼종합전시관은 금산군의 인삼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

4)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한 활용

금산인삼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중에서도 우수한 축제로서 평가되어 왔다. 그동안의 금산인삼축제가 국내 문화관광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면 향후 금산인삼축제는 국제적인 인삼축제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축제장소를 기존의 인삼시장과 엑스포 행사장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금산인삼웰빙특구 추진과 관련한 활용

금산인삼웰빙 특구의 추진방향은 기존의 인삼과 수삼을 직거래하는 기능에서 금산 인삼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금산을 인삼의료치료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과 휴양형 치료시설과 프로그램을 엑스포행사장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개발한다. 엑스포행사장을 금산인삼웰빙특구의 핵심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3. 엑스포 행사장 활용방안

1) 현황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순수한 행사장 면적은 약 17,038평이며, 지원시설인 주차장면적은 약 20,600평이다.

-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90번지 일원
- 행사부지 : 총면적 124,423㎡ (37,638평)
  행사장 56,323㎡ (17,038평)
  주차장 68,099㎡ (20,600평)
  (호티리지구-15,600평/참뱅이뜰-5,000평)

행사장으로의 진입도로는 금산IC에서 들어오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대전 및 무주방향에서 들어오는 37번 국도, 금산읍을 거쳐 약초시장을 관통하는 2차선 도로 등이 연계되어 있다.

〈그림 5-1〉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사진 5-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2) 문제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장 면적이 협소하여 영구이벤트장 조성이나 독자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이라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없어서 공간의 상징성이 부족하다.

셋째, 현재로서는 축제시기 외의 기간에 관광객 흡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3) 활용방안

문제점의 검토에서 보듯이 엑스포장 활용의 가장 큰 과제는 먼저 장소의 협소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엑스포 행사시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던 건강체험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장소의 협소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의 활용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안 1은 대규모로 금산인삼테마공원조성안이며, 대안 2는 소규모 인삼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의 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인삼관, 약초시장을 연계하는 안 등이다.

(1) 금산인삼테마공원 (대규모)

엑스포행사장을 금산인삼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으로서 인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인삼테마공원으로서 위상을 높인다.

엑스포 행사 당시 조성하고 운영했던 건강체험관 부지 (약 300평)는 금산군에서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의 기존 계획에서 공간적으로 확대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인삼이라는 테마로 공간을 통일되게 연출한다.

금산인삼테마공원 내에 인삼의료치료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의료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것은 금산군을 숙박형 체류관광지로서 변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금산인삼테마공원 내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된 행사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한다. 상징물을 조성하는 방법은 공모전을 통한 방법이 무난해 보인다. 상징물의 유형은 규모가 큰 전망대가 있는 상징탑이 될 수도 있으며 소규모의 상징조형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금산인삼테마공원 (소규모)+국제인삼유통센터+금산인삼관+약초시장을 연계

엑스포 행사 당시 조성하고 운영했던 건강체험관 부지 (약 300평)는 금산군에서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의 기존 계획에서 인삼이라는 테마로 공간을 통일되게 연출한다.

금산인삼테마공원 내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된 행사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한다. 상징물을 조성하는 방법은 공모전을 통한 방법이 무난해 보인다. 상징물의 유형은 규모가 큰 전망대가 있는 상징탑이 될 수도 있으며 소규모의 상징조형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산인삼테마공원 (소규모), 국제인삼유통센터, 인삼종합전시관, 약초시장을 연계하는 하나의 관광패키지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사진 5-2〉 금산인삼테마공원 후보지인 건강체험관

〈사진 5-3〉 금산인삼테마공원 후보지인 건강체험관 입구

4. 국제인삼유통센터(GINDEX) 활용방안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1) 시설 개요

〈사진 5-4〉 인삼유통센터 전경

금산인삼유통센터는 부지 21,544평, 연면적 3,184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3년 10월13일에 착공하여 2005년 4월 30일 준공하였다.

총사업비는 269억원이 소요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 188억원, 지방비 81억원 투자되었다.

건물 용도에 따른 면적은 집배송장 930평(29.2%), 도소매장 793평(24.9%), 필수지원시설 425평(13.4%), 기타지원시설 1,036평(3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별로는 2층은 수삼집배송장, 도매매장, 증삼실, 예냉실, 저온저장고와 지원시설로서 전시판매장, 식당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상품개발실, 자연·기계건조장, 선별포장실 등과 함께 사무실, 전산실, 다목적실, 비즈니스실, 회의실 등이 있다.

- ❍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78번지
- ❍ 부지면적 : 총74,317㎡(22,480평) - 74,317㎡ 중 공원면적 3,094㎡(936평) 포함
- ❍ 연 면 적 : 10,526㎡(3,184평)
-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 건축구조 : 철골콘크리트조
- ❍ 주차대수 : 163대
- ❍ 총사업비 : 26,947백만원(국비18,863, 지방비8,084)
- ❍ 사업기간 : 2003. 10. 13 ~ 2005. 4. 30

〈표 5-1〉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세부시설 및 용도

건물면적 및 활용계획					건물 규모	구조 및 외부마감	주차대수 (대)
총 계	집배송장	도소매장	필수 지원	기타 지원			
3,184평	930평	793평	425평	1,036평	지하1층 지상3층	◦ 철골 및 콘크리트조 ◦ 우레탄 칼라 복합판넬	지하 117 지상 21
	29.2%	24.9%	13.4%	32.5%			
유 통 센터동	◦ 2층 : 수삼집배송장, 도매매장, 증삼실, 예냉실, 저온저장고 ◦ 3층 : 상품개발실, 자연·기계건조장, 선별포장실 등						
지 원 시설동	◦ 2층 : 전시판매장, 식당 ◦ 3층 : 사무실, 전산실, 다목적실, 비즈니스실, 회의실 등						

동별 세부용도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 생산/유통동(우측동) 및 지원동(좌측동)

자료 : http://www.gindex.co.kr

가. 생산/유통동 - 2,393평

구 분	용 도	면적	구 분	용 도	면적
지하1층	기계실 외	274평		현장사무실	38평
1층	관리사무실	8평		잔류농약검사실	40평
2층	비즈니스룸	18평		홍삼 포장실	81평
	외국인전용관	21평		홍삼 증숙실	65평
	출하사무실	30평		자연건조장	130평
	집배송장	344평		자재창고	68평
	저온창고	239평		파우치제조실(협력업체)	98평
	전시판매장	282평			
	수삼 세척실	299평	공유	계단, 화장실 등	358평

나. 지원동 - 791평

구분	용 도	면적
1층	주차장	
2층	식당	94평
	전시판매장	118평
3층	다목적실(강당)	140평
	사무실 등	158평
	정보통신실	15평
공유	계단,화장실 등	266평

다. 판매장 현황

구분	단위	내용
면적	평	282
입점 업체수	업체	45
입점 제품수	품목	210
투자금액	백만원	162
근무인원	인	판매직:4명/Part Time 1명
영업일	일	월2회
영업시간	시간	하절기 Am10:00~pm7:00, 동절기 Am09:00~pm6:00

라. 수삼세척 Line 현황

구분	단위	내용	비고
수삼세척 Line 면적	평	299평	
기계생산성	세척라인	100kg/1hr	
	멀티박	700ea/1hr	50g기준
	진공	450ea/1hr	20g기준
	탑실링	300ea/1hr	

생산품목	
세척포장수삼	75g, 200g, 400g
미세척포장수삼	75g, 400g
선물세트	특대호, 대호(750G)

마. 증삼기 및 건조장 현황

구분	단위	내용	단량
증삼 및 건조실면적	평	65평	
자연건조장 면적	평	130평	
기계생산장	증삼기	300kg/4hr	
	건조실	600kg/16hr	
	시밍기	200캔/1hr	
생산제품	홍삼유	원형홍삼	계획중
		원료용 홍삼	10kg단위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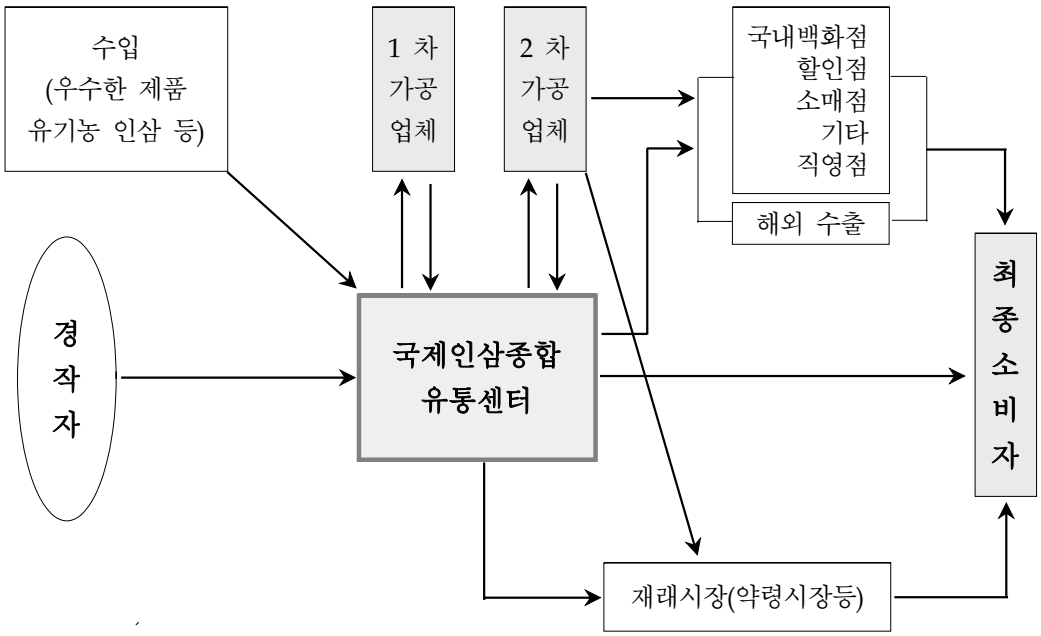
바. 기타 시설 및 설비현황

□ 저온보관창고 운영 - 1~2개 창고 예상 (창고당 22평-48파렛트 적재가능)	
□ 세미나실 활용 - 인삼관련단체를 위한 식품정보교류 (동원식품연구원 소장 강의) - 금산군과 협력하에 인삼관련학회의 세미나 유치	
□ 홈푸드 식당운영 - 인삼관련요리 식당 및 카페테리아 운영 - 인삼정식 등 다양한 인삼전문음식 체험	
□ GINDEX 광장 및 잔디 광장 활용 - 장날시 금산군 10개 읍/면 특장물 직거래 장터제공(금산군과 협의 및 무상 공간활용) - 금산군 각종 행사시 장소제공 (문화관광부 전국 싸이클, 금산인삼축제 등)	

(2) 역할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역할은 국내 경작자 및 우수한 국외삼의 유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1, 2 차 가공업체에 적정한 원료삼 공급하고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다양한 수삼 및 인삼가공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5-3〉 국제인삼유통센터의 금산센터의 Flow



(3) 기능

인삼유통센터의 수삼 및 인삼 품질인증, 규격화, 차별화, 편리성, 자료거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적 업무기능으로는 수삼 및 인삼가공품 도, 소매업무, 수삼 및 가공품 보관 업무, 인삼제품 도매물류(관계사 협력), 수삼, 원료삼에 대한 품질인증, 인삼 수출입 및 대행업무 등의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운영현황

건립 초기 운영사업 주체로서 CJ(주)를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CJ(주)측에서는 ①지역상권 및 단체와의 이견 분쟁시 충청남도가 민원해결, ②충청남도와 단독 협약, ③사업초기부터 소매 허용, ④원료삼 구매 자율권 보장, ⑤운영의 전반적인 독립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충청남도의 난색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04.7.1), 설립주체도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으로 일임('05.1.7)하게 된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회사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동원F&B 결정되어 협약체결과 함께 동년 8월 3일 전문 쇼핑몰 개장하였다.

〈표 5-2〉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위탁신청 회사

회사명	대표자	제안방법	자본금	비 고
동원F&B	박인구	단독	157억원	
WGC	신봉교	컨소시엄	50억원	

동원F&B가 인산유통센터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인삼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장기적 국가적으로는 인삼사업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동원F&B의 2006년 유통센터 운영방향은 첫째, 경작자 이력관리 및 철저한 농약잔류검사를 통한 수삼, 원료삼 구매, 둘째, 과학적인 세척과정 및 차별화된 포장형태의 수삼제품 생산, 셋째, 판매장, 전시장 내 인삼제품 판매를 통한 동원F&B 인삼사업 홍보, 기반구축, 넷째, 센터 내 유휴 공간을 특정매입 거래, 사용수수료 사업 등으로 활용을 통한 이용효과 극대화 등이다.

2006년 센터의 운영방향	○ 경작자이력관리 및 철저한 농약잔류검사를 통한 수삼, 원료삼 구매 ○ 과학적인 세척과정 및 차별화된 포장형태의 수삼제품 생산 ○ 판매장, 전시장내 인삼제품 판매를 통한 당사 인삼사업 홍보, 기반구축 ○ 센터 내 유휴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 : 특정매입거래, 사용수수료 사업 등

2) 문제점

국제인삼유통센터와 그 역할에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삼산업에서 차지하는 금산지역의 위상제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요인이 노출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인삼시장의 유통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산지 유통시설 부족과 물류기능 미약, 거래의 경쟁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매유통의 경우 물류기능 미약과 저효율 물류구조, 시장정보가 비공개적이며 불투명하고, 소매유통의 경우 비규격상품, 등급화와 규격화 미흡, 시장정보 부재, 구매신뢰성, 유통시설의 낙후와 협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산지역의 인삼생산 비중이 낮고 저년근의 비중이 높아서 전문가들로부터 저품질 인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금산인삼산업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랜 전통의 수삼거래지가 투명하지 못한 유통질서와 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삼재배기술, 제품연구개발,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역할은 향후 지대할 것으로 보이나 금산군과 관련 인삼유통 당사자들이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운영방향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 있다.

3) 활용방안

국제인삼유통센터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인삼물류센터의 중심지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며 둘째, 인삼연구소를 국제인삼유통센터 내에 입주시켜 인삼관련 연구와 유통관련 정보를 이곳을 통해 집대성하는 것이다.

(1) 국내외 인삼물류센터의 중심지로서 활용

현재 금산지역은 전국 수삼의 약 80% 정도가 경유하는 국내 인삼시장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산시장은 인삼과 함께 약초, 생약, 건약재 등이 거래되는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소 가공산업의 집적으로 인삼시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관광, 보양도시로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삼유통센터를 국내외 인삼물류센터의 중심지로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금산지역의 인삼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삼유통의 핵심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삼물류센터의 기능은 도매물류기능, 상품화기능, 국제물류기지기능, 전자상거래기능이 있다.

도매물류기능은 기존시장과 차별화되고 브랜드화된 수삼 및 인삼제품과 기존 가공업체 제품의 도매배송 기능이며 금산 지역 소매시장에 대한 현장도매기능을 포함한다.

상품화기능은 금산인삼상품의 표준규격화,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를 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국제물류기지기능은 해외 수출시장의 네트워크화, 수출업무와 수출 물류기지 기능 등이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금산인삼축제와 2006년에 개최된 금산인삼엑스포의 국제인삼교역전에 참가했던 외국 바이어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물류기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업체, 농산물유통공사, KOTRA,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기능은 온라인으로의 시장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도매물류나 현장도매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전자상거래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은 바이어초청 판매행사의 보조영역으로서 발전시키고 매년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인삼연구소를 국제인삼유통센터 내에 설립하여 활성화

현재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의 위상을 인삼연구소로 격상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삼연구소에서는 인삼제품의 연구개발과 인삼재배 기술을 연구하여 이를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기능성 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대덕 연구단지 등과 협력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음성에 입지예정인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와의 연계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인삼의 모든 연구결과를 금산의 인삼연구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인삼 특화상품으로 특허 등록되는 부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인삼연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의 길림성,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구기관과 인삼연구결과를 교류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따라서, 인삼연구소에서는 인삼 관련 정보센터기능도 도입해야 하며, 인삼 관련 연구결과와 인삼 유통관련 정보의 교류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5. 금산인삼관 활용방안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1) 시설 개요

국제인삼유통센터 북쪽에 위치한 금산인삼관은 금산군이 1998년에 건립한 금산인삼종합전시관을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9억원[6]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연면적 1,26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다.

- ❍ 위　　치 : 금산읍 신대리 392번지
- ❍ 규　　모 : 건평 1,262평, 지하1층 지상3층
- ❍ 총사업비 : 6,960백만원 (국비 2,900백만원, 도비 725백만원, 군비 3,335백만원)

전시관 1층에는 바람 및 물, 사람 발자국 소리와 인삼재배 과정을 묘사한 '풍수인관', 기념품 판매소, 중앙 홀, 카페 등이 있으며, 특별히 귀중품보관소 105개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금산인삼의 유래와 인삼약초의 효능 및 성분을 분석한 '인삼약초관', 인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상식을 담은 '건강생애관' 등이 배치되어 있다.

3층에는 조선시대 인삼무역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관', 인삼, 약초의 향 및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층에는 지구촌의 민속을 알려주는 생활민속・유물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6) 총사업비는 6,96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900백만원, 도비 725백만원, 군비 3,335백만원 등이 소요되었다.

(2) 운영현황

금산인삼관 운영시간은 오전9~오후6 (동절기 오전9~오후5) 까지 개관되며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조직은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2명과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직 2명은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은 인삼관의 유지관리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람객 수는 엑스포 기간 중 평일에는 평균13,500명이 방문하였고 주말에는 평균44,1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며, 엑스포 기간 평일 13일, 주말 11일 등을 고려할 때 약660,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삼종합전시관이었을 때는 연간 방문객이 약7천여명 정도였으나 엑스포 이후에는 인삼관 남쪽에 광장이 조성되어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약초시장 및 유통센터를 찾는 방문객 들은 광장에 주차를 하고 인삼관을 방문하고 있다.

광장에는 일평균 30대~14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으며, 차량방문객에게 인삼전시홍보뿐만 아니라, 각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문제점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은 금산인삼관은 인삼홍보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능확보를 위해서는 전문홍보인력과 전시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인삼유통센터 등 주변 시설물이나 프로그램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여 운영되지 않으면 운영 측면에서 금산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3) 활용방안

금산인삼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둘째,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셋째, 금산인삼웰빙특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1)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금산인삼관의 지속적인 콘텐츠 보완과 연출관련 리모델링을 국제인삼유통센터내의 인삼연구소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인삼연구소에서 특허 등록된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기능성 상품을 금산인삼관에서 재미있게 체험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외 인삼바이어들이 관심 있게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금산인삼의 과학적인 효능을 알기 쉽게 연출하고 금산이 국내외 인삼 유통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금산인삼관에서 홍보하도록 한다.

(2)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금산인삼축제 행사장을 기존의 약초시장에서 금산인삼관, 국제인삼유통센터,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금산인삼축제는 향후 행사장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접근 측면에서도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금산인삼관도 이와 연계하여 전시·체험 콘텐츠를 강화한다.

금산인삼축제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지만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행사이후에도 금산을 방문하는 중요한 단서를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비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금산인삼웰빙특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금산인삼웰빙특구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금산군과 충남도에서 추진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금산인삼웰빙특구는 인삼의료특구로서 발전시켜야 하며 관련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엑스포행사장내에 설치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구 시설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삼종합전시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연출할 필요가 있다.

인삼종합전시관은 금산지역을 관광객이 연중 방문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시설로서 발전 가능하다.

제 6 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후 도시 관리 방안

1. 도시기능과 역할 정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후 금산은 대외적으로는 인삼 중심지로서의 도시이미지를 확고이 하며 침체되어가는 인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금산군 도시공간구조에 있어 기존에 구도심과 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역의 경제생활권이 동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선행되었던 많은 엑스포, 전시회, 박람회 등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듯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산은 이에 충남의 금산에서 대한민국의 금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젼과 함께 엑스포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도시기능 확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산은 대한민국의 인삼산업 및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진흥시킬 수 있는 도시기능이 필요하다.

수요자에게는 엑스포 개최지에 걸 맞는 고품격의 제품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엑스포 이후의 성과가 골고루 향유되며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발전방안

1) 도시공간구조 구상

(1) 기본방향

가. 기본전제

엑스포 이후의 금산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금산읍 도시발전패턴을 반영하고, 장래 도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도시공간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래 도시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금산읍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셋째, 금산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금산군 중장기발전계획과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등과 연계하여 기 수립되고 있는 2020 금산군기본계획(안) 등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간구조 설정의 기본방향

금산읍은 기존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다양한 용도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골격을 유지하며, 기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지역은 향후 도시발전방향 및 기존시가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금산읍 전체의 성장・개발축은 국도13호선 및 37호선, 국지도68호선을 근간으로 하며, 금산읍 외곽순환로를 완성하여 개발영향이 금산군 전체로 파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개발축 상에 향후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중심지를 설정하여 기능배분을 하며, 보전축은 도시 서남부의 녹지축 및 수계축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엑스포 이후 금산읍 발전방향을 검토를 통하여 금산읍 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도시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금산읍 전체의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정립한다.

(2) 기능배치구상

금산읍의 주요 개발축 및 보전축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별로 기능을 배치하면, 국도13호선, 37호선 및 국지도68호선의 개발축을 중심으로 도시의 주요 상업·행정·산업기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중심시가지에는 상업·업무기능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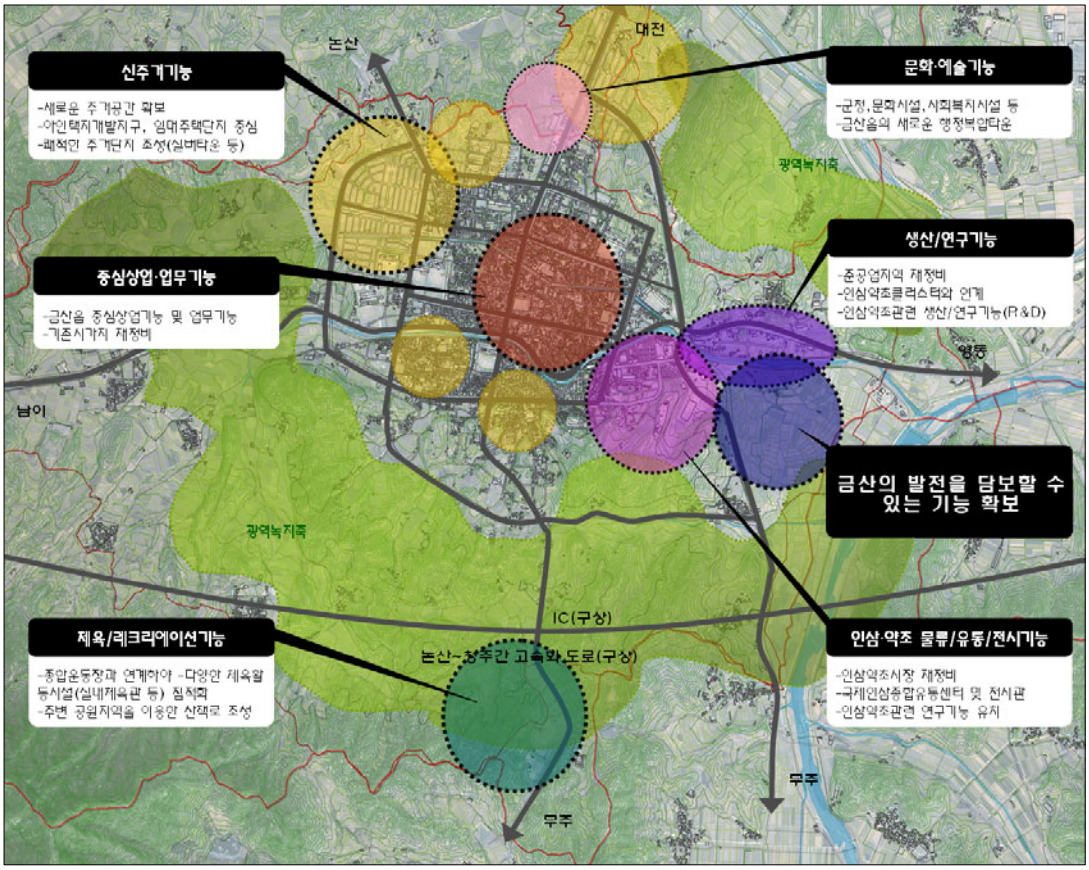
시가지 외곽부인 금산읍 북서쪽 아인택지개발지구 주변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주거기능을 배분한다.

신개발예정지구인 도시 동남측 엑스포 부지 주변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앞으로 금산의 도시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산읍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금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삼·약초 관련 산업, 관광지 또는 미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복지·행정의 중심지로 조성을 제안할 수 있다.

동측 준공업지역은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하여 인삼·약초관련 연구개발(R&D)과 생산기능을 유치할 경우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인삼·약초시장 및 종합물류센터 주변은 유통·물류·연구기능을 집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삼·약초클러스터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금산읍 도시외곽부분의 서부, 서남부 동부, 동북부쪽으로는 양호한 자연녹지축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 녹지축을 구축하고, 녹지축과 연계한 도시공원 조성과 도시 남측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주변 녹지공원과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체육/레크레이션 기능을 도입한다.


논산
대전
신주거기능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아인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단지 중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실버타운 등)
문화·예술기능
-군청,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금산읍의 새로운 행정복합타운
광역녹지축
생산/연구기능
-준공업지역 재정비
-인삼약초클러스터와 연계
-인삼약초관련 생산/연구기능(R&D)
중심상업·업무기능
-금산읍 중심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기존시가지 재정비
영동
남이
금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 확보
광역녹지축
IC(구상)
논산~청주간 고속화도로(구상)
체육/레크리에이션기능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시설(실내체육관 등) 집적화
-주변 공원지역을 이용한 산책로 조성
인삼·약초 물류/유통/전시기능
-인삼약초시장 재정비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및 전시관
-인삼약초관련 연구기능 유치
무주
무주

〈그림 6-1〉 기능배치구상

2) 정비권역 구분 및 권역별 관리방안

(1) 정비권역 구분

엑스포 이후의 금산읍 장기발전과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위해 기능배치구상을 바탕으로 정비권역을 설정하면, 다섯 개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권역과 대상지역을 보면 엑스포 행사장 주변권으로서 대상지역은 중도리, 신대리 일원, 상업·업무권으로서 중도리, 하옥리 일원, 시가지 밀집권으로서 아인리, 상리, 상옥리 일원, 신개발권역으로 안인리, 상리, 호티리 일원, 시가지 외관권으로서 금산읍 시가지 외곽지역과 계진리, 음지리, 양지리 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1〉 금산읍 정비권역의 구분

구 분	대상지역	현 황
엑스포 행사장 주변권	중도리, 신대리 일원	◦ 인삼・약초시장,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금산경찰서 입지 ◦ 준공업지역 포함
상업・업무권	중도리, 하옥리 일원	◦ 시가지 중심지역 일반상업지역 포함 ◦ 여객자동차터미널, 금산군법원 입지
시가지 밀집권	아인리, 상리, 상옥리 일원	◦ 금산군청, 다목적군민회관, 도서관 입지 ◦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밀집지역 ◦ 협소한 가로 및 용도혼재
신개발권	아인리, 상리, 호티리 일원	◦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 택지조성사업에 의한 아파트단지 포함
시가지 외곽권	금산읍 시가지 외곽부분, 계진리, 음지리, 양지리 일원	◦ 취락밀집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

(2) 권역별 관리방안

가.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

□ 개발방향

인삼・약초 물류유통기능 강화와 연구개발(R&D)・생산기능 유치를 통하여 인삼・약초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또한, 공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유치를 통해 금산읍의 행정중심지역 또는 한방밸리 등의 유지를 통하여 새로운 개발을 모색한다.

□ 관리방안

한방밸리,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의 유치를 통하여 웰빙형 관광지, 행정복합타운 등 새로운 개발가능성을 모색한다.

기존 인삼・약초시장의 지속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건물 재건축 및 리모델링, 소규모 블록형 재개발,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현대화사업 추진한다.

국제인삼종합물류센터 및 전시관을 활용하여 인삼・약초시장과 연계, 문화・이벤트・홍보를 위한 특화공간을 마련한다.

준공업지역은 가로체계 정비 및 건축물 현대화사업 등의 도시 재정비를 통하여 인삼・약초 관련 연구/생산개발기능 유치(한방연구소, 한방유통정보센터, 한방산업연구센터 등 금산읍 종합육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방관련 연구기능의 수용)함으로서 R&D단지를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시가지 내에 버스터미널 등을 이전하여 인삼 교류와 유통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준공업지역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사이를 흐르고 있는 금산천은 인삼・약초시장, R&D단지 내를 통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천변 주변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공원 및 광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한다.

나. 상업 · 업무지역

□ 개발방향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중심상업기능을 활성화한다.

□ 관리방안

건축물 외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상가용도, 간판사인 등의 인식성을 제고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세가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상업지역으로서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상업 · 업무시설과 인접한 기존 교육시설 및 소공원을 활용하여 중앙공원 등을 조성하고, 상업지역 내 광장 및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 어메니티를 증진시킨다.

상업 · 업무지역을 가로지르는 후곤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하고 주변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상업 · 업무지역에 활력을 부여한다.

다. 시가지 밀집지역

□ 개발방향

쾌적한 교육 ·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관리방안

주거환경 정비촉진을 통하여 노후화된 주거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주거지역 정비는 소단위 블록형 개발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확보한다. 특히, 소도시에 어울리는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한다.

시가지 밀집지역의 가로 크기는 휴먼스케일을 확보하여 정주성과 보행성을 증진시키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저층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고층아파트의 입지는 경관상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시가지의 개발은 중저층, 중정형 주택의 도입을 유도한다.

도시 서측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및 학생체육관 주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지와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체육관 등), 관공서를 연계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라. 신개발지역

□ 개발방향

금산읍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을 확보한다.

주변지역 녹지대와 연계된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존 시가지내 개발 가용지 부족에 따른 장래 택지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 관리방안

중심시가지 및 주변 공원, 교육시설로의 보행접근체계를 구축한다.

친수·생태하천 조성 및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를 활용하여 친수공원 또는 수림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생활편익시설을 확보한다.

추후 개발여건 및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로계획 및 교차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교통효율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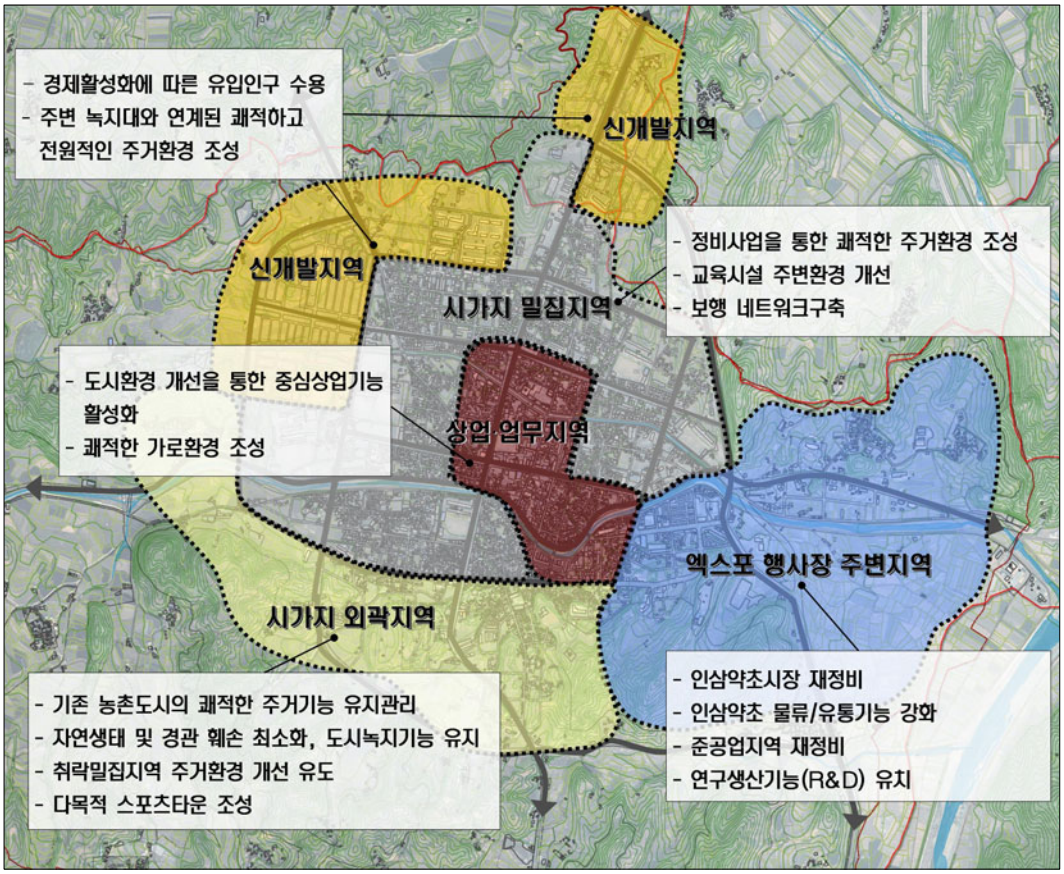
마. 시가지 외곽지역 및 미개발지역

□ 개발방향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 하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농촌도시의 쾌적한 주거기능을 유지·관리한다.
자연생태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의 녹지기능을 유지한다.
취락밀집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기존 금산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 관리방안

취락밀집지역은 마을정비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마을로 육성한다.
자연구릉지 주변 주거지역에는 테라스형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주변환경 및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건강테마를 주제로 한 실버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시가지에서 떨어진 금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도시 외곽지역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유휴농경지의 경우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한다.



〈그림 6-2〉 권역별 관리방안

3.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 개발정비방안

1) 현황 및 잠재력 분석

엑스포 행사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사장과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중점정비권역으로 설정하여 세밀한 현황분석과 함께 정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분석 및 정비방안 수립이 필요한 엑스포 행사장과 인접 대상지역을 중점정비권역으로 설정하고, 앞서 살펴본 금산읍 전체 공간구조 및 기능배치와 엑스포 행사장과의 연계성, 향후 개발방향 등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정비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6-3〉 중점정비권역 대상지역

(1) 여건검토

가. 인삼・약초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일대

금산천 남측 인삼・약초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소매업체가 집적되어 있으며, 주로 인삼약초관련 제품판매와 약제가공, 판매기능이 대부분이다.

인삼・약초시장 서측으로 재래시장이 있고, 동측으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및 전시관 등 엑스포 행사개최를 위해 개발된 신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인삼・약초시장 내 상가건물은 대부분 1~3층 규모이며, 노후화된 것이 많아 물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엑스포 행사개최로 인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금산천 주변 및 인삼・약초거리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인삼약초시장 남측 및 중도사거리 북측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기존 인삼약초시장과 신개발지구 사이에 신생상점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동측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준공업지역 일대

동측지역의 준공업지역은 공장, 창고, 식당, LPG충전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가로망 체계는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인삼・약초산업의 외연적 확산과 인삼・약초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생산/연구기능 등의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인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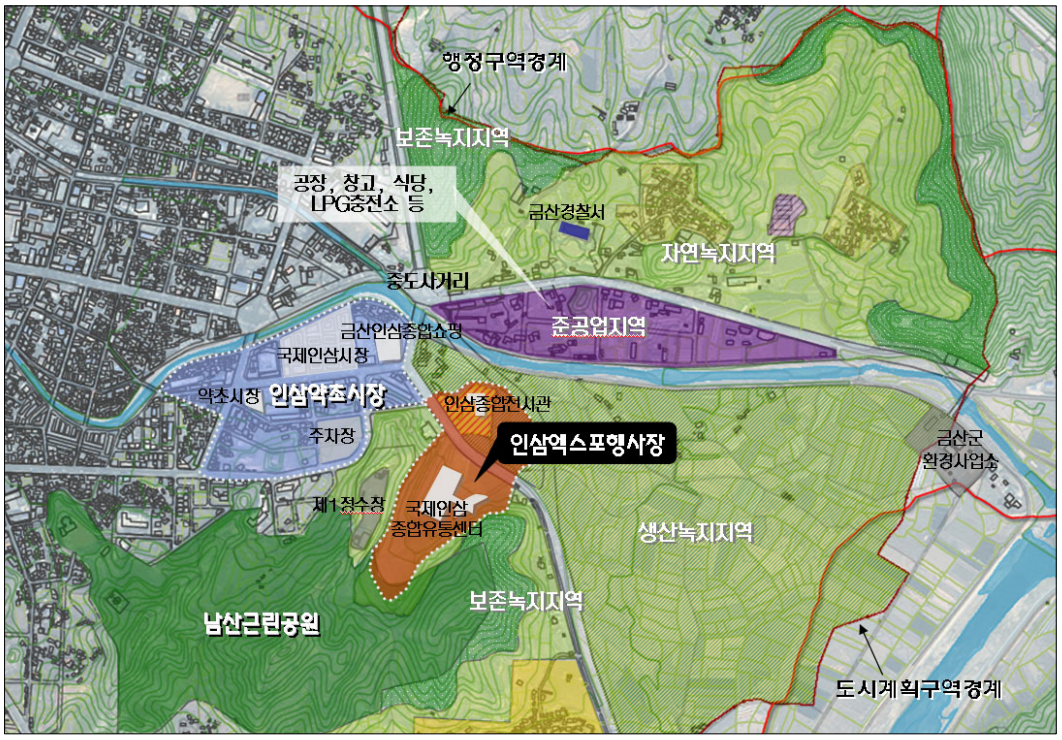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은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기존시가지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며, 금산 IC로 진입하여 바라보는 금산의 주요 관문으로서, 금산군 전체의 도시이미지 형성이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엑스포 행사 홍보효과로 인하여 인삼 관련 수요자 및 관광객이 증가하여 향후 판매유통기능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주변도로 개설과 확·포장으로 대상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인삼·약초시장에서 금산IC 부근으로 이어지는 도로변 난개발이 예상되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획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점정비권역 내 일정지역을 금산읍의 신시가지로 확장 조성하여 금산읍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중점정비권역의 대부분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획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대상지역을 시가화구역으로 반영하고, 건축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6-4〉 중점정비권역 현황도

2)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은 금산읍 발전의 주요지역에 위치하며 금산이 인삼도시로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상안을 설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금산 권역별 개발 및 관리방향에서 제시된 도입기능 등을 검토한다. 인삼・약초 물류 유통기능 강화와 연구・생산기능(R&D) 유치를 통한 인삼・약초 클러스터로 육성, 한방밸리 등의 조성, 공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유치 등을 검토한다.

둘째, 도입기능의 검토는 금산읍의 성장동력 확보, 사업파급효과, 장기적 발전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 개발과 계획단위개발을 전제로 한다.

(2) 도입기능 및 시설 검토

가. 도입기능의 검토

① 인삼・약초 클러스터 구축

인삼・약초시장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인삼・약초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엑스포행사장 주요시설인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금산군의 인삼・약초 물류・유통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준공업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인삼・약초관련 R&D기능을 유치하여 금산 인삼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확보한다.

남동쪽에 입지한 생산녹지지역 내 인삼재배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인삼수요자 및 관광객들이 인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한방산업단지 조성

기존의 인삼・약초시장, 유통센터와 차별화하며 연계성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입시설로서는 한방중앙운영센터, 한방연구센터, 한방생산산업단지, 한방인삼건강타운 등을 들 수 있다.

한방중앙운영센터에는 한방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총괄역할을 하며, 창업보육, 한방DB구축, 유통현대화 및 수출지원, E-business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연구센터는 한방천연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한약인삼규격인증센터 등을 설립하여 한방소재 및 천연물의 과학적, 체계적 탐색분리, 신약 및 제약소재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방생산산업단지에는 한방시험공장, 한방제약공장, 한방식품관련공장 등의 유치를 통하여 고품질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한방인삼건강타운에는 한방병원(한방진료, 치료, 자가진단코너 등의 기능 포함), 한방휴양시설(인삼・약용식물원 등) 등을 조성한다.

③ 인삼・약초 웰빙형 주거타운 조성

로하스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주거단지에는 3세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웰빙형 주거건축을 도입하고 주변의 체험, 판매, 축제 기능과 상호연계 되도록 한다.

④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 시가지지역에 위치한 금산군청을 엑스포 행사장 동측 생산녹지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행정중심지역을 조성한다.

엑스포 행사장 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고 금산군의 행정・문화・복지・유통의 요지로 개발한다.

금산읍 시가지에 입지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변지역에서 새로 조성되는 행정복합 타운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표 6-2〉 행정복합타운 도입가능시설

구분	도입시설	규모
공공시설	금산군청	
사회복지시설	노인・여성복지시설, 복지센터, 보건소, 실・내외체육시설 등	
문화・전시시설	인삼종합전시관과 연계, 공연장, 도서관 등	

⑤ 취락밀집지역 재정비

금산천 북측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취락밀집지역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전원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새로이 도입될 기능에 배후지원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도시정비대안 설정 및 검토

엑스포 이후의 주변지역 도시정비 방안은 전국적 차원에서 금산의 변화된 위상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관련정책 입안자 및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정비방안은 연구범위의 한계 상 입안자와 주민들의 동의 하에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진행을 통하여 분석된 엑스포 이후의 성과, 엑스포 이후 행사장 운영사례, 금산의 여건과 행사장 주변지역의 잠재력,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검토된 도입시설 등을 바탕으로 수개의 대안을 설정하며, 최종대안의 선정과 추진은 충청남도 및 금산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됨을 전제로 한다.

기본구상에서 논의된 도입기능 및 시설 검토를 바탕으로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 정비대안을 설정하면,

첫 번째 대안은 기존의 금산 인삼·약초의 개념을 확대하여 한방·약초 밸리로 조성하는 안이며,

두 번째 대안은 인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약초시장과 연계된 현대식 인삼제품생산공장과 연구소, 관련대학이 연계되는 인삼·약초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안,

세 번째 대안은 금산도시공간기능을 재편하여 기존의 군청과 복지, 문화시설을 새로운 금산의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에 복합화시킴으로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안이다.

대안 1 : 인삼·약초를 소재로 한 한방·약초 밸리 조성
대안 2 :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삼·약초 클러스터 지대로 조성
대안 3 : 기존의 인삼약초시장과 함께 군청, 복지시설 유치를 통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대안별 공간구성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안 1 - 한방・약초 밸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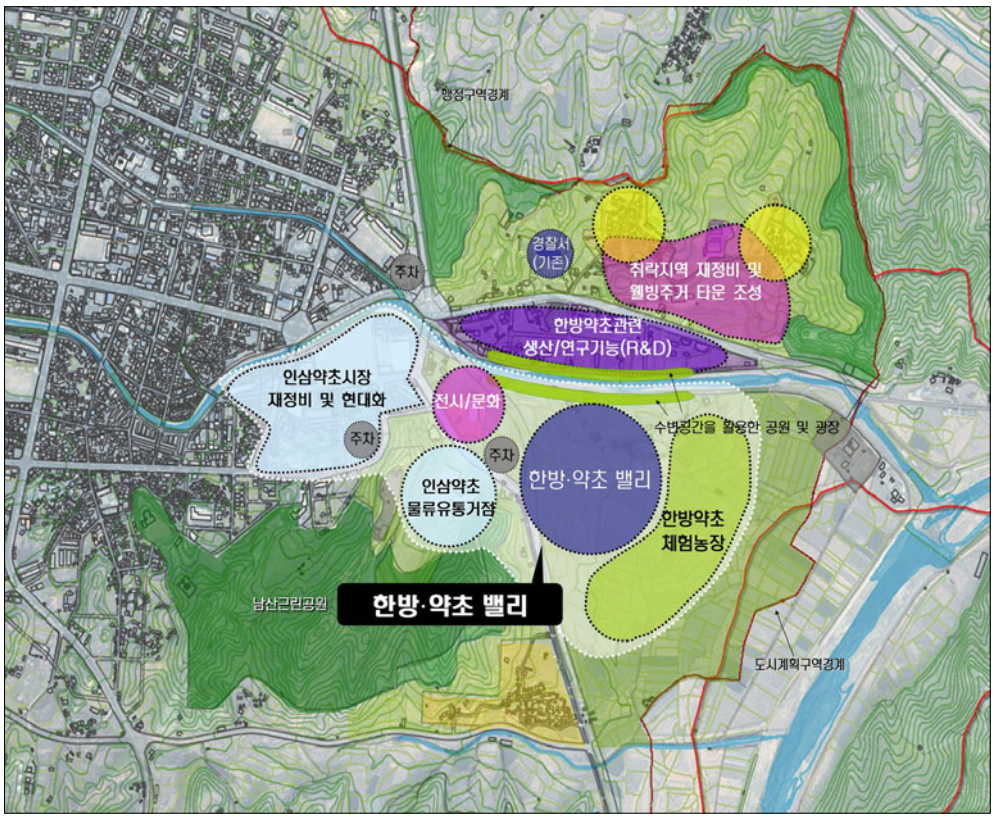
한방・약초 밸리조성은 기존의 인삼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한방・약초 관련 산업을 지역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약초시장, 국제인삼유통센터 동측 부지에 한방·약초 밸리를 입지시키고 지원기능으로서 준공업지역 내에는 한방·약초 관련 생산시설,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

한방·약초 밸리 배후에는 한방·약초체험 농장을 조성하여 한방·약초 밸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북쪽의 기존 취락지역은 현지 개량형 재정비를 통하여 한방관련 웰빙주거 타운으로 조성하여 한방・약초 밸리 관련 근무자 들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6-5〉 대안-1 한방·약초 밸리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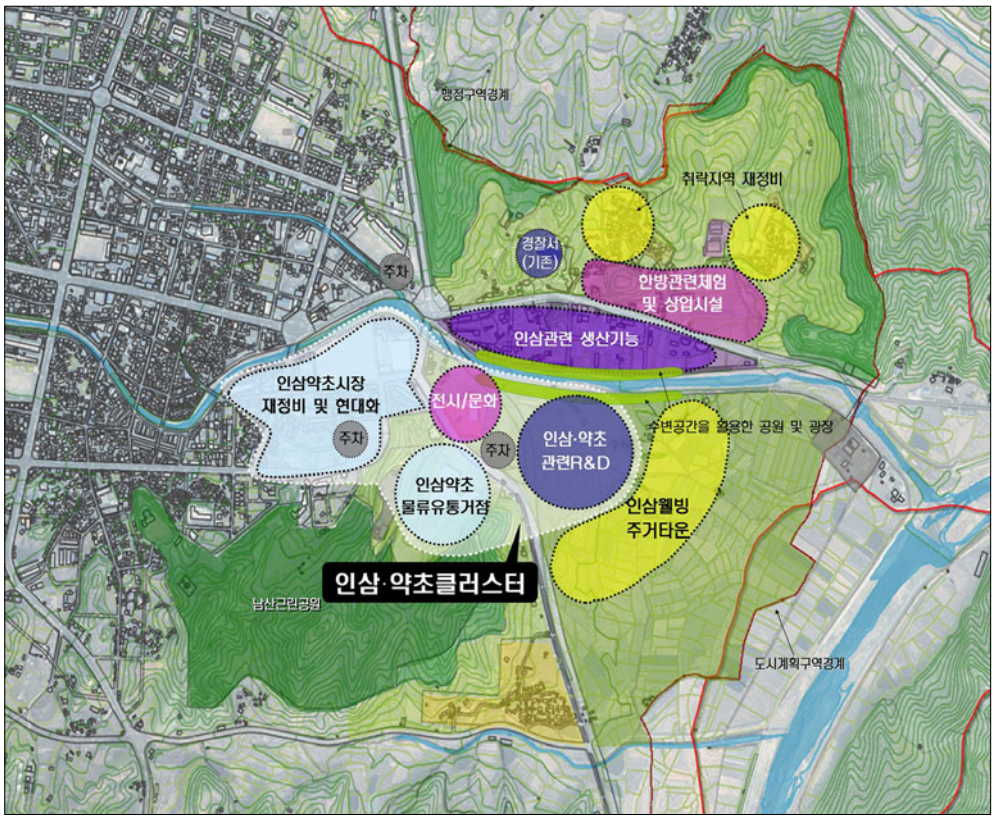
(2) 대안 2 -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금산 인삼의 생산, 판매, 유통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능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생산시설의 도입, 마케팅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삼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약초시장, 국제인삼유통센터 동측 부지에 인삼·약초 R&D 단지를 조성하고, 배후지인 북측 부지에는 생산기능, 남동측 부지에는 R&D 단지 연구원, 생산 종사자, 그리고 기존 금산 주민들의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웰빙형 연구주거타운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 주거,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은 북쪽의 기존 취락지역을 재정비하여 상업과 한방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다.

〈그림 6-6〉 대안-2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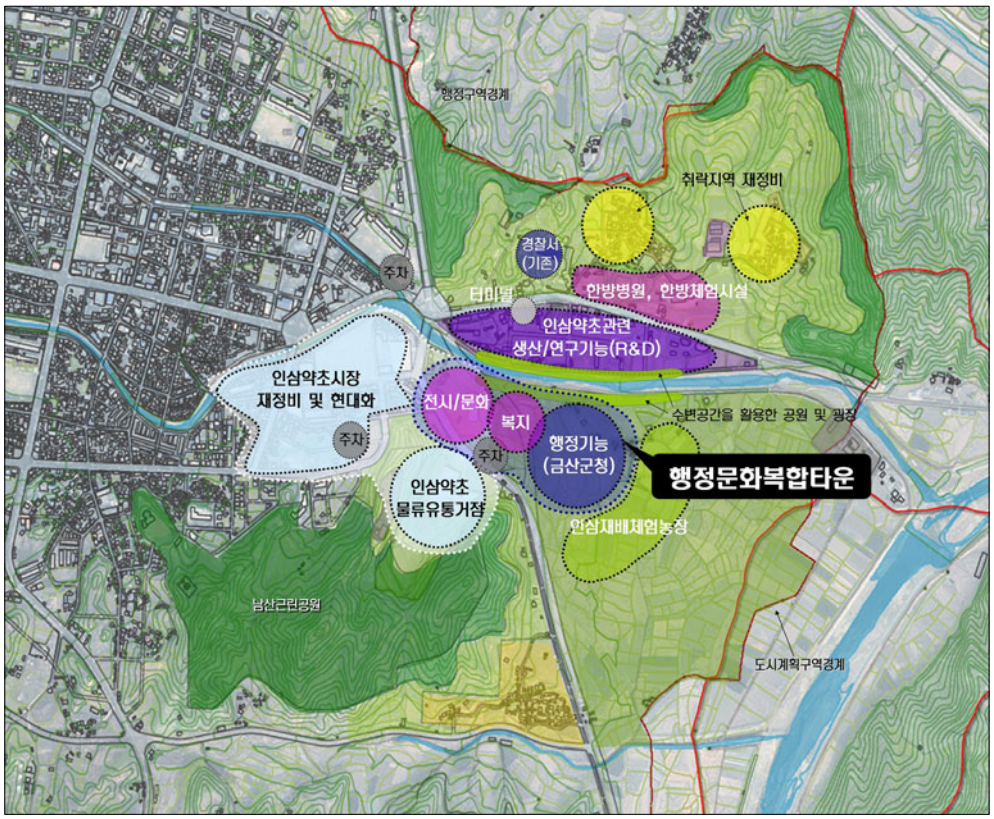
(3) 대안 3 -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은 기존 금산읍 도시공간발전 잠재력, 증대되는 행정, 문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삼약초 판매 및 유통기능과 함께 전시, 문화, 복지, 행정 기능을 복합화하는 방안이다.

기존 약초시장, 금산인삼관과 연접해 있는 금산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수변공간에는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도심기능과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북쪽 준공업지역에는 인삼약초관련 생산연구기능 등을 유치하며, 기존 취락이 있는 곳은 재정비를 하고 한방병원 및 한방체험관련시설을 입지시켜 늘어나는 의료복지수요에 대응한다.

〈그림 6-7〉 대안-3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안



(4) 대안비교 검토

엑스포 행사 후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방안 대안별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1인 한방·약초 밸리 조성안은 금산지역의 강점인 인삼을 중심으로 한방·약초부문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서 금산군에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밸리안에 조성되는 산업기능 외에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기능은 금산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함으로서 인삼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경제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인삼 외에 새로운 시장 약초 및 한방 생산, 유통, 판매 기능 등의 수요파악과 유치, 새로운 사업진출의 사업주체 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기존시장과의 경쟁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대안-2인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인삼제품생산, 유통, 연구, 지원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위생적인 생산설비, 다양한 인삼 관련 품목,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삼연구소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국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의 연구개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으며, 인삼클러스터로 형성되는 새로운 시장이 기존의 약령시장과 약초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 차원의 인삼연구소 외에 관련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3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은 늘어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행정, 문화서비스를 동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서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기존 구도심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청 및 관련시설의 이전은 주변지역의 상권 위축 및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문화복지복합타운 조성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6-3〉 도시정비방안 비교 검토

구분	장 점	단 점	비고
대안-1 **한방·약초 밸리 조성안**	◦ 인삼을 중심으로 한방·약초시장까지 확대함으로서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 ◦ 산업·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금산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음	◦ 새로운 시장유치 및 진출에 대한 준비, 시간 소요	
대안 2 **인삼・약초 클러스터 조성**	◦ 기존의 인삼제품생산, 유통, 연구, 지원 기능의 고도화 ◦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충청남도 차원의 인삼연구소 외에 관련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움	
-대안 3-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 금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문화서비스 제공 ◦ 구도심을 중심으로 서동부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구도심의 침체를 가져와 지역간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대안 1, 2, 3의 비교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 대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산 및 지역발전에 적합한 안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검토되었다.

참고문헌

김봉일, 이준영, 신동인(1995) , “도시계획”, 기문당

충청남도 금산군(2004.12), “금산읍 종합육성계획”, 충남발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2), “국제인삼교역전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종합운영계획 연구”

충청남도(2003),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산군(2006.7), “2025 금산도시기본계획(안)-기초조사자료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1.2),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중장기 발전 계획”

재단법인 문화엑스포(2003.7),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마스터플랜”

충청북도(2002.12),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과분석”

삼척시(2000.3),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 기본계획”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2002.10),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활용방안”

충청남도(2004.7), “충남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한송(2001) “지방엑스포 행사장의 실태 및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홍철(2002) “EXPO 행사장의 사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록 1.

1. 행정복합타운 사례 검토 :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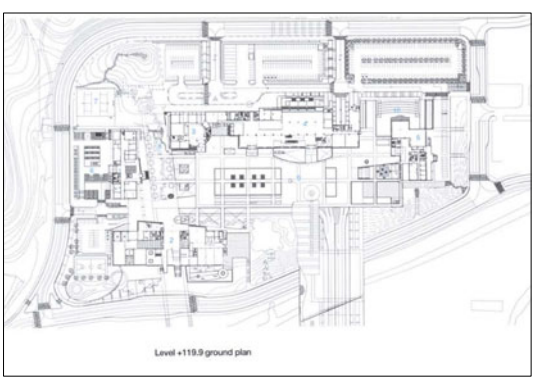
용인시에서는 시청 본청사, 시의회청사, 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예술원 등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조성하였다.

용인구도심과 최근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심간의 불균형 및 지역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행정의 요지로 계획된 대규모 콤플렉스이다.

전체 건축면적의 약 50%를 상회하는 공간에 문화, 복지시설 도입하였다.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센터는 노인치매시설, 실내·외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예술원은 300석 규모의 공연장,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대회의장 마련하였다.

기존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는 구청업무 및 시민평생학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8-1〉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배치도

〈그림 8-2〉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표 8-1〉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요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대지면적	236,449m²	건축면적	15,618.33m²
연 면 적	79,572.33m²	건 폐 율	19.08%
용 적 률	60.83%	사 업 비	1,974억원

〈표 8-2〉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계획

구분	주요시설명	계획면적		비고
		㎡	평	
공공업무시설	본청사	44,659.72	13,533.24	부대시설 주차장포함
	의회청사	6,509.06	1,972.44	
	소계	51,168.78	15,505.69	
문화복지시설	보건소	6,556.08	1,986.69	
	복지센터	14,705.23	4,456.13	
	문화예술원	7,150.89	2,168.92	
	소계	28,412.20	8,609.74	
부속건물	부속건물	144.08	43.65	차량정비소(22.95), 안내소(121.11)
	소계	144.08	43.65	
합계		79,725.04	24,1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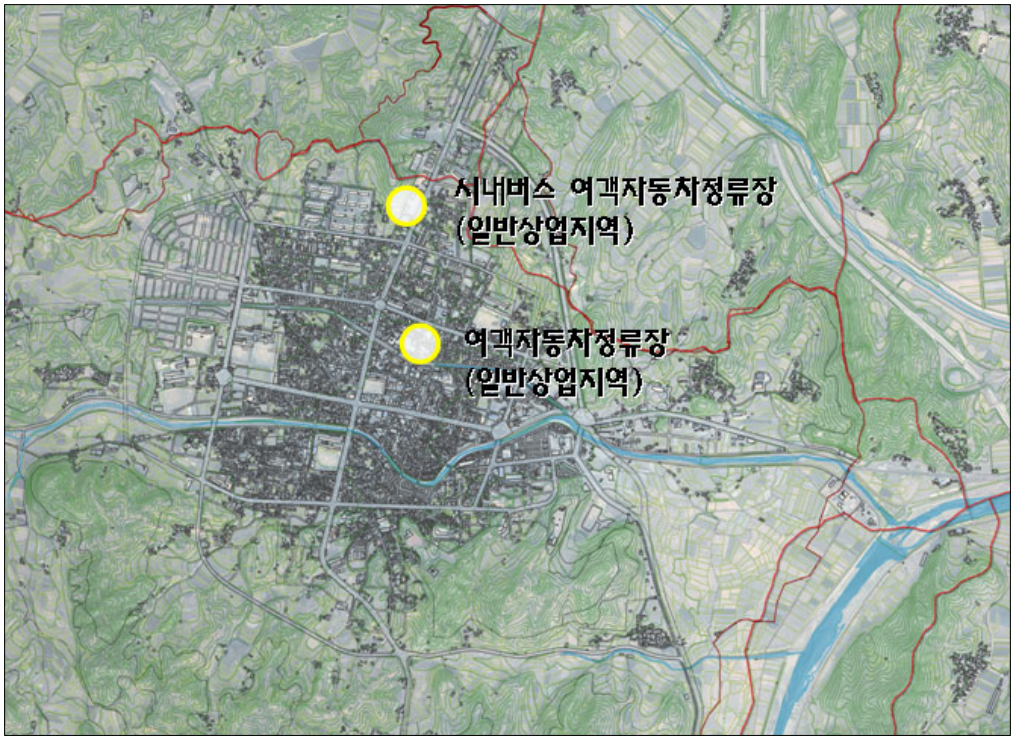
2. 금산군 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이전

금산읍 시가지 내 자동차정류장 2개소를 국지도68호선변 준공업지역으로 이전(경찰서 맞은편)하여 금산 IC 및 상위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논산~청주간 고속화도로 IC와 인접한 곳에 입지시키는 계획이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새로 조성되는 행정복합타운 및 인삼·약초클러스터에 대한 주변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표 8-3〉 자동차정류장 현황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금산읍 상리	4,280	일반상업지역
	시내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금산읍 상리	2,133	일반상업지역
합 계			6,413	



〈그림 8-3〉 자동차정류장 현황

법규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기준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③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⑤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음)

〈표 8-4〉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설치 가능여부

구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1종	2종	1종	2종	3종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보존	생산	자연	계획	생산	보전		
교통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	×	×	×	○	○	○	×	○	×	×	○	×	×	×	○	×	×	×	×
	시내버스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

주 : × : 불허, ○ : 입지허용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철희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박근수 배제대학교 교수

충발연 2006-05 ·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후관리방안 연구

글쓴이 · 박철희 · 박근수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6년 10월 31일 / 발행 · 200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301-745)
전화 · 042-820-1151(도시계획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89552-75-8 9303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